

코스피	-18.59	2,581.03
코스닥	-10.60	734.59
환율 (원/달러)	-2.0	1,380.20

휘발유(원/리터)	1593.68	▲ (+0.25)
경유(원/리터)	1422.35	▼ (-0.16)
LPG(원/리터)	1016.55	▼ (-0.22)
WTI(달러, 23일)	71.20	▲ (+0.43)

‘HBM이 효자’ SK하이닉 분기 실적 ‘새 역사’

<고대역폭메모리>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효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조3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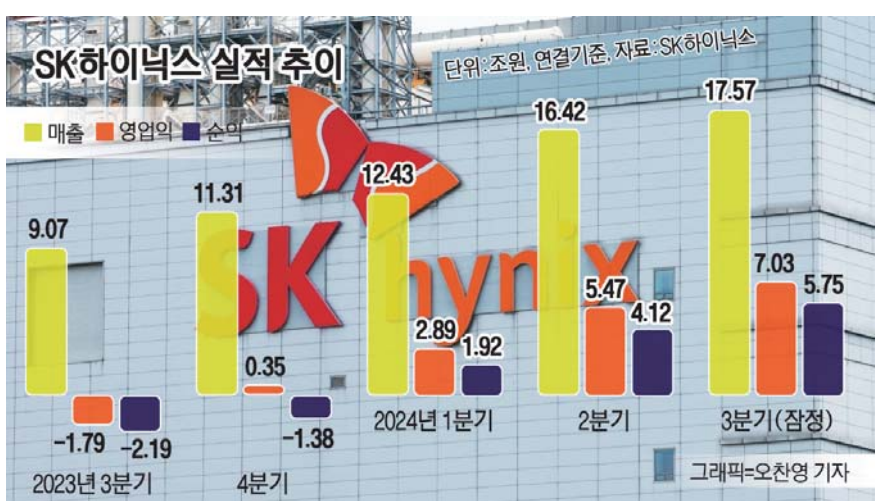
전년 동기(영업 손실 1조7920억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6조4724억원)를 뛰어넘는 분기 최대 실적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17조5731억원으로 93.8% 증가했다. 이 또한 지난 2분기를 넘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성적표다. 순이익은 5조7534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고, 매출은 밑돌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매출 18조370억원, 영업이익 6조7628억원이었다.

수익성이 높은 HBM, eSSD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판매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 고객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지속됐고, 이에 맞춰 회사는 HBM, eSSD 등 고



수익성 높은 HBM·eSSD 등 AI 메모리 판매 확대가 실적 견인 3분기 영업익 7조300억원, 매출은 17.6조로 전년비 93.8% 성장 순익도 5.7조 새기록... “4분기 HBM3E 12단 공급 수익 극대화”

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사상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성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늘며 D램 및 낸드 모두 평균판매단가(ASP)가 전 분기 대비 10%대 증반 올라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HBM이 효자 노릇을 했다. HBM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 동

기 대비 330% 이상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낸드플래시에서는 eSSD 제품 판매가 늘었다. 이에 eSSD는 3분기 낸드플래시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SK하이닉스는 내년에도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AI 서버용 메모리에 비해 수요 회복이 더뎠던 PC와 모바일

용 제품도 각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AI 메모리가 출시되며 내년부터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AI 메모리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며 수익성에 치중하는 전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D램에서 기존 4세대 HBM인 HBM3를 5세대 HBM3E 8단 제품에 도입한 HBM3E 12단 제품의 공급도 계획대로 4분기에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낸드에서도 SK하이닉스는 투자 효율성과 생산 최적화 기조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고용량 eSSD의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우현 SK하이닉스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경영실적 달성을 통해 글로벌 ‘넘버 1’ AI 메모리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수요에 맞춰 제품 및 공급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면서도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우현 기자 kyh81@ekn.kr

반복되는 로또 청약...제도개선 한 목소리

사회적 비용 낭비·형평성 논란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 조장 땀질식 아닌 근본적 개혁 필요”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수백만 명이 몰리는 ‘로또 청약’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이 기존 아파트보다 더 싸게 분양되면서 당첨 즉시 수익원의 이익을 보는 데다 아파트 무순위 청약시 ‘아무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낭비가 심하고 형평성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지난달 양산에 도입한 HBM3E 12단 제품의 공급도 계획대로 4분기에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로또 청약’은 지난 22일 진행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 이파크’ 1순위 청약(307가구)이었다. 무려 8만2487명이 신청해 268.7대 1의 평균 경쟁률이 기록됐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도 3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0대 1에 달했다.

로또 청약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지난달 강남구 청담동 ‘청담 트릴’ 1순위 청약에는 85가구 모집에 총 5만6717명이 몰려 평균 66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잔여·반납 물량 때문에 발생하는 ‘줍줍’, 즉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은 더 세다. 지난 2월 강남구 개포동에 공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선 3가구 공급에 무려 101만3456명이 신청했으며, 지난 7월 경기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접수에서는 미계약 물량 1가구에 294만4780명이 신청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수백만 명이 청약에 도전하는 것은 우선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의 명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놓았는데, 이로 인해 당첨시 수익원의 차이가 생기면서 아파트 청약이 마치 ‘로또 당첨’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분상제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실수요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잔여 물량을 무순위 청약·추첨으로 분상하는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공공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이 허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 수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아무나’ 청약이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상제로 인한 시세 차익이 큰 서울 강남권 매매의 경우 수백만 명이 몰리는 등 주택 청약이 마치 ‘복권 구매’처럼 변질된 상황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도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인 2021년 5월엔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이 허용됐지만 주택시장이 냉각된 지난해 2월부터는 민영아파트에 한해 ‘아무나 지원’을 허용했다.

이같은 로또 청약 열풍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백만 명이 청약에 한꺼번에 접속하는 바람에 사이트가 다운되는 일이 다반사다. 무주택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청약제도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고 ‘금수저’들의 ‘줍줍’에 이용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주택자인지 여부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외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관련 보고서를 펴내 “주택청약의 근본 취지인 무주택자를 위한 합리적인 주택 공급과 소수만을 위한 로또 청약 방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지방해 온 분상제 폐지 또는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금값 고공행진...한돈에 50만원 육박 금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24일 서울 성동구의 금거래소에서 이날 금값이 게시돼 있다. 국제 금값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갈등이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금값이 또 최고가를 찍고 강세를 이어가 지난 23일 국제 금값은 전일보다 2750.9달러를 기록했고 이날도 조금 내린 2729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미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지만,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값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 집중 질타

24일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부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낙하산 논란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슈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락가락한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벨린베스트먼트 대표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삼부를 언급한 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는 등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지난 14일과 17일 진행된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해당 내용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 SGI서울보증 감사 낙하산도 공세

삼부토건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실시했고, 현재는 금감원이 심리결과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본조사 배정을 받은 만큼 금감원 조사가 최대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 사건을 먼저 봤던 한국거래소는 2~3개월이면 된다고 답변을 했고 약속을 지켰다”며 “금감원도 언제까지 끝내겠다 답변을 달라”고 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의 특성상 시기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혐의 있음’으로 결과보고서를 올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의원

장은 “조사 내용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 심리분석 결과가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오히려 좀 드물다”고 대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는 논란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보증보험 감사를 추천했나”고 김병현 위원장에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같은 질의를 받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없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93%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추천받지 않았다고 하고, 예보기조부장은 회의 때 처음 김대남씨란 이름을 보고 형식상 추천을 했지 누가 추천을 했는지 모른다고 한다. 서울보증보험은 공모 절차도 없이 추천을 보고 진행했다고 한다”며 “금융위, 예보, 서울보

증보험도 다 부인하면 남은 곳은 대통령실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10조원 이상 들어가 있는데, 금융권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감감이식으로 가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선점을 마련해 보고 해달라”고 말했다.

흔란스런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가계부채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금융당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국토교통부는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정책 대출 대상은 줄이는 일은 없었기라고 단언을 하더니 이달 기습적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시도했다”며 “실소유자들 불만이 폭발하자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우회로 선회했다. 이게 무슨 아니면말고시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직후 상한가 직행

113만8000원...시총 14위로 정중 28일 발표 최윤범 회장 지분 주목

고려아연 주가가 공개매수 종료 직후 열린 첫장에서 상한가로 직행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잔여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장내에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5-8면】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1%)까지 상승하며 113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려아연은 이날 개장 당시 약보합세로 출발했으나 곧 강세로 전환하며 오전 9시 40분경 상한가에 도달했다.

상한가인 현재 시점 고려아연의 시가 총액은 약 23조5000억원으로 유가증권 시장 내 14위다. 이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9월 12일(37.9%)에서 무려 23% 이상 상승한 것이다.

영풍-MBK 연합합과 최 회장 모두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나 둘 모두 과반 지분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이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에서 최대 20%의 주주가 응했다더라 지분은 약 36%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연합합은 기존 지분에 공개매수를 통해 5.34%를 추가하며 약 38.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의 지분보다는 많지만 과반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양측 모두 앞으로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수다.

이에 시장에서는 양측이 장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최 회장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 이행금 지급처분 신청을 취하며 방어 전략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의 결과는 최종 결재일인 오는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의결권 있는 지분을 얼마나 추가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테슬라가 쏘아올린 '전기차 회복론'... 트럼프에 제동 걸릴까

테슬라 예상치 웃도는 3분기 실적 발표...내년 판매량도 증가 기대
트럼프 '전기차 의무화 정책 종료' 공약 되풀이...“낙관론에 찬물”

세계 최대 전기차회사인 테슬라가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내년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회복하는 것이냐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이같은 낙관론에 찬물이 끼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23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매출이 251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해 시장 예상치(253억7000만달러)를 소폭 밑돌았다.

다만 영업이익은 54% 늘어난 27억 1700만달러를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영업이익률 또한 10.8%로 3.2% 포인트 높아졌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당순이익(EPS)은 0.7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0.58달러를 훌쩍 뛰어넘게 됐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차 판매량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스크는 실적 발표 이후 콘퍼런스콜에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내년의 대략적인 추정을 제시하고 싶다”며 “내년에는 더 낮은 가격의 차량과 자율주행의 도래로 20~30%의 차량(판매)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테슬라에 대해 최악은 지나갔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이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막대한 마진과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테슬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큰 발걸음을 내뼐다”고 밝혔다.

디프웨어 자산관리의 진 먼스트 매니징 파트너도 “장기 투자자들이 환금 당근을 챙긴 셈”이라고 했다.

이처럼 테슬라가 실적 턱어라운드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전기차 시장도 이에 힘입어 회복하는 것이냐는 기대감도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

를 사기라고 비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폐기되거나 대폭 축소될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히 전기차에 대

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는 최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유세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종료하겠다는 공약을 되풀이했다.

지난 7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선 “전기차는 훌륭하고 일론 머스크는 환상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100% 전기차로 갈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현재 안팎의 전기차 수가 수십만대에 이르지만 자동차 기업들은 불평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자동차 및 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이 전기차 관련 정책들이 바뀔 수 있지만 전기차 판매량과 기업들이 입게 될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입을 모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7500달러를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IRA 정책을 건드려도 주정부 차원에

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는 17곳에 달한다고 짚었다.

또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도 IRA에 따른 수혜를 많이 누린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IRA 정책 축소·폐기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거론됐다. 실제 지난 8월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IRA 폐지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책 컨설팅업체 아틀라스 퍼블릭 폴리시의 니니그로 창립자는 “이 시점에서 (전기차) 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전기차 속도조절을 내서는 일부 기업들에게 수익이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소 업체 차지포인트 홀딩스의 릭 윌버 CEO는 이번 대선 결과가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작은 장애물을 접하거나 작은 가속 차를 만나는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테슬라 호실적에도 이차전지株 “바닥 뚫고 지하로”

국내 이차전지 관련 종목이 1년이 넘는 조정기를 거친 후 일부 회복했지만, 제자하락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이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POSCO홀딩스는 지난 9월 24일부터 전날까지 11.28% 떨어졌다. 9월 6일 33만3000원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같은 달 27일 38만65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내 하락하면서 최근 33만원 후반~34만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는 중이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도 지난 9월 24일부터 전날까지 11.30%, 9.98% 하락했다. 같은 기간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기간 2.42% 하락했다. 10월 8일 43만6500원까지 회복했으나, 전날 40만3000원에 마감했다. 포스코퓨처엠과 LG화학, 엘앤에프도 한 달간 7.7%, 5.49%, 5.25% 떨어졌다.

이차전지주 부진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부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차전지 TOP10 레버리지’ ETF는 1개월간 14.96% 하락했다. 해당 종목의 구성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POSCO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이

단기조정 지속...美대선 결과 주목
전기차 캐즘 2026년께 해소 가능



국내 이차전지 관련 종목이 1년이 넘는 조정기를 거친 후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제자하락세다. 충전중인 전기차. 연합뉴스

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차전지산업 레버리지’와 한국투자자산운용의 ‘ACE 포스코그룹포커스’ ETF도 한 달간 각각 11.20%, 8.94% 떨어졌다. ‘TIGER 2차전지테마’와 KODEX ‘2차전지산업’ ETF도 각각 -5.26%, -5.01%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테슬라의 호실적에 국내 이차전지주의 반등 기대감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 불확실성이 남아 투자

심리 개선을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다. 테슬라는 지난 23일(현지시간) 3분기 순이익이 21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주당순이익은 72센트로 월가의 예상치(0.58달러)를 웃돌았다.

실적과 관계없이 테슬라가 공개한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익 전망이 없었다는 점은 국내 이차전지 종목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평가한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에서 ‘모델 2’를 중심으로 한 자가 전기차 계획이 부족하단 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차전지 종목 주가는 당분간 부침을 겪을 수 있다”며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내년과 내후년 실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지만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차전지 종목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이차전지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 영향 때문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내달 새출발 중기유통센터, 티메프 책임론에 ‘끼꿍’

오는 11월 새 명칭 ‘한국중소벤처기업 유통원’으로 출발을 앞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몬·위메프 사태 책임론에 휩쓸려 충격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티메프 사태 과정에서 중기유통센터가 정부의 소상공인 판로지원 예산이 새어나가는 ‘밀빠진 독’으로 악용됐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중기유통센터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키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치권의 날선 질책을 받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중기유통센터가 티몬과 위메프 두 이커머스기업의 부실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4년간 티몬·위메프에 60억 넘게 지원...“부실 알고 기준없이 강행”
나홀로 계약 조건 변경해 피해 면했지만 타 입점업체 통보 안해 비난

을 지원해 피해를 키웠다고 한목소리로 추궁했다.

또한, 중기유통센터가 티몬과 위메프의 부실 징후를 인지한 후 계약조건을 바꿔 이번 사태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정작 다른 입점업체들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결국 소상공업체들만 피해를 뒤집어 쓰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온라인 쇼핑물 판로지원사업 도맡으며, 티몬과 위메프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왔다. 티몬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같은 기간 위메프는 33억2000만원의 예산을 받

았지만, 티몬은 2019년부터 적자를 기록했고, 위메프는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심지어 티메프는 사태 발생 직전 전보증보험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이 거절됐다고 센터 측에 알렸으나 센터는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도 않고, 티메프에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했다는 질타가 쏟아진 이유였다. 국회산자중기위 장철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유통센터는 티메프와 계약

조건을 신규 지급에서 후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번 사태에서 손해를 전혀 입지 않았고, 결국 피해는 다른 참여 업체들만 보게 됐다”며 “부실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왜 티메프에게 계속 특혜를 주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티메프가 특혜를 받은 이유로 직전 문재인 정부측 인사들과 관련성 때문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니경원 의원(국민의힘)은 “당시 협약 당사자는 위메프의 창립멤버로 홍보실장을 지낸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박유진 의원”이라며 “그런데 2020년 센터의 담당 부서장은 현역 민주당 의원의 최측근인 장전선 전 본부장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디지털보좌관 출신 김현성 전 본부장이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알림

‘신재생에너지 정책’ 세미나

내달 1일...녹색 新비즈니스 기회 창출 위한 제도 소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천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가 오는 11월 1일(금) 2024 인천 그린에너지 전시 기간 중에 개최됩니다.

그린에너지는 인천 유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산업 특화 전문 전시입니다. 세미나는 기업의 녹색 신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비즈니스 전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정수소, 수소연료전지, RPS, 분산에너지, 해상풍력, RE100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세미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문가 발표로 이어지며, 분야별 정책을 통한 기업의 사업화 전략 방안을 모색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 ◇행사일시: 2024. 11. 1(금) 10:30~16:00
- ◇행사장소: 인천 그린에너지 컨퍼런스장2
-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사·인천관광공사
- ◇프로그램

시간	주제	연사
10:30~12:00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비즈니스 창출방안	이혜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청정수소인증연구실장
	청정수소 발전시장 입찰과 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김권 전력거래소 청정수소수부장
	분산형 수소연료전지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방안	김정숙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사무국장
12:00~14:00	전시장 관람 및 네트워킹	
14:00~16:00	신재생 공급의무화 제도(RPS)시장 현황과 발전방향	박성우 에너지공단 RPS 사업실 팀장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차별화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김근호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팀장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과 비즈니스 창출 방안	박강준 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정책총괄팀장
	RE100 달성을 위한 에너지시장 구조 합리적 개편 방안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과 교수

에너지경제

“경쟁사의 시장진입 막는 특허소송은 위법”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특허 침해소송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쟁당국이 밝혔다. 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경쟁사를 겨냥해 특허 침해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활동은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을 판단하는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도 법원 판시를 반영해 완화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HBM 최강’ 날개 단 SK하이닉스, 반도체 겨울론 정면돌파

올 3분기, 분기 최대 매출·영업익 달성...HBM 등 고부가제품 효과
4분기부터 HBM3E 12단 제품 공급 예정...향후 실적 더 좋아질듯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강세...“HBM 가격, 전년 대비 상승할 것”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써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효과에 힘입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겨울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5세대 HBM인 HBM3E 12단 제품 공급도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향후 실적 전망도 밝은 상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7조5731억원, 영업이익 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성적표다.

이번 최대 실적으로 SK하이닉스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도체 겨울 우려를 잠재웠다. 최근 소비자용 PC·모바일 수요 약화로 메모리 산업이 불황 초입에 들어섰다는 반도체 겨울론이 투자 업계에 퍼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으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한 모양새다.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 고객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지속됐고, 이에 맞춰 회사는 HBM, 기업용 SSD (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하며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호실적에는 글로벌 HBM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하이닉스는 24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HBM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330% 이상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를 이끌었다”며 “D램 내 HBM 매출 비중이 3분기 30%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고성능 제품이다. 인공지능 (AI) 시대 개화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AI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고용량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AI 메모리 HBM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HBM의 판매 단가는 기존 D램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요가 늘수록 SK하이닉스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SK하이닉스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이후 1세대 (HBM)부터 5세대 (HBM3E)에 이르는 동안 선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엔비디아에 HBM3E 8단 제품을 납품



하는 유일한 업체로 글로벌 빅테크에 독점적인 공급 업체 입지로 구축했다.

고부가 제품인 eSSD도 3분기 낸드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실적이 기여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60테라바이트 (TB) 제품을 업계에서 유일하게 공급 중이며 122TB 제품도 내년 상반기 공급을 목표로 인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4분기부터 HBM3E 12단 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전망도 밝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최대 용량인 36기가바이트 (GB)를 구현한 HBM3E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발표하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콘퍼런스 콜에서 “4분기에는 예정대로 HBM3E 12단 제품의 출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D램 내 HBM 매출 비중이 4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BM3E 12단은 엔비디아 B300 등 제품에 탑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을 견인할 거란 분석이다.

이의진 흥국증권 연구원은 “AI 중심의 고부가 수요가 증가하며 평균판매단가 (ASP)가 견인하는 업사이클임이 매 분기 확인되고 있다”며 “HBM3E 12단 제품은 4분기 실적에 반영되며 경쟁력이 재차 부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HBM 등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내년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콘퍼런스 콜에서 “내년 HBM 수요는 AI 칩 수요 증가와 고객의 AI 투자 확대 의지가 확인되고 있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당사 평균 HBM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HBM 사업 강화로 안정적 매출을 확보하면서도 수익성은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현대차, ‘비수기’ 3분기에도 또 역대 최대 매출

매출액 42조9283억 4.7%↑ 101만대 판매
하이브리드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영업익은 3조5809억원, 전년비 6.5% 감소
총당금 등 일회성 비용 발생에 영업익 줄어

현대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 하이브리드차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호조로 인해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올렸다. 반면 총당금 등 일회성 비용 증가로 영업익은 감소했다. 이에 현대차는 ‘내부혁신’을 통한 원가절감을 통해 영업익의 회복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24일 경영실적 컨퍼런스콜 (컨콜)을 통해 3분기 실적이 판매 101만1808대, 연결 기준 매출액 42조9283억원, 영업이익 3조5809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7% 증가,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매출액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매 확대, 우호적인 환율환경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은 북미 지역 선제적 보증 연장 조치에 따른 총당금이 반영돼 전년 동기비 소폭 감소했다”며 “이를 제외하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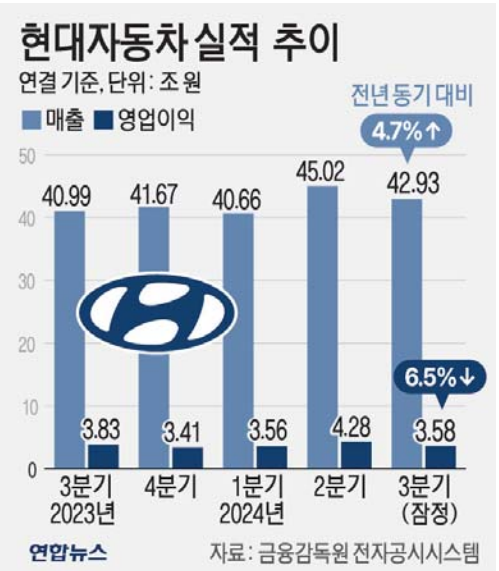
이어 “꾸준한 체질 개선 노력으로 견고한 기초 체력을 갖춰 대응하고 있다”며 “치밀한 내부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3분기는 ‘자동차 비수기’라 불린다. 휴가, 연휴기간과 겹쳐 생산량이 다른 분기 대비 저조하고 신차 구매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3분기 판매 대수만 살펴봐도 2분기 대비 4.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번 3분기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3.2% 감소했다.

판매대수 감소에도 현대차는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SUV, 하이브리드차 등 단가가 높은 모델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기차 캐즘 (일시적 수요둔화)’가 장기화되면서 하이브리드차의 판매가 늘어난 것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서는 공장 하계 휴가, 추석 연휴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SUV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며 “해외 시장에서는 신형 싼타페,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인기에 힘입어 북미 지역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전환경차 판매대수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와 북미 지역 투싼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환율 상승도 매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3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한 1359.4원을 기록했다.

반면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한 탓에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은 전년 동기보다 0.2%포인트 오른 11.5%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노사 임금단체협약 (임단협) 서발생한 비용도 영업이익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현대차 컨콜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타결이 7월에 이뤄지면서 이때 발생한 4000억원의 기타비용이 3분기 실적에 반영됐다.

현대차는 영업이익률 회복을 위해 ‘원가절감’에 전념할 방침이다. 우선 미래 제품 트렌드, 수익성, 효율적인 제조 및 부품 조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분야에서도 핵심 부품 원가 개선에 나서고 다양한 배터리 타입을 탑재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차는 컨콜을 통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원가절감 중장기 계획을 추진중”이라며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공비 등은 다소 오를 수 있지만 재료비가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료비 인상 추세에 대해선 선물환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과 계획에 대해선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환율하락, 금리인하 등 매크로 불확실성 증대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비우호적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부문별 대응책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icw@ekn.kr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B금융, 3분기 누적순이익 4.4조...초과자본 13% 주주환원 '기대'

ELS 손실 대규모 충당·NIM 축소 등 비우호적 환경 속 견조한 성적 증권·보험·카드 등 비은행 기여도 작년 3분기 37%→올해 44%로 상승 "내년부터 CET1 비율 13% 초과 잉여자본 모두 주주 환원할 방침" 2025년 연중 13.5% 초과 잉여자본 하반기 자사주·매입 소각 재원 활용

KB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4조3953억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1분기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대규모 충당부채 전입,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순이자마진(NIM) 축소 등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에도 비은행부문 기여도가 40%대까지 상승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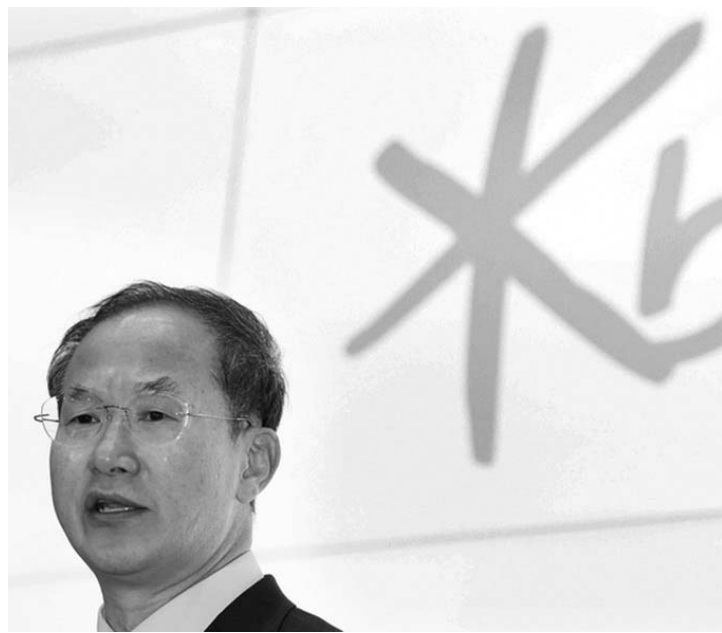
KB금융지주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보통주 자본비율(CET1) 비율 13%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을 모두 주주에게 환원한다. 올해 연말 13%가 넘는 잉여자본은 내년 1차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중 CET1 비율이 13.5%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내년 하반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투입할 예정이다. CET1 비율과 연계한 주주환원은 JP모건 등 글로벌 선도 금융사가 진행하는 주주환원 방식으로, 지



KB금융그룹

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분기 누적순이익 0.4% 증가 그쳐...비은행 기여도 ↑ KB금융지주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



양홍희 KB금융 회장

은 '지속가능한밸류업방안(이하밸류업공시)'과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KB금융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지배기업지분순이익 1조6140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은 4조39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KB금융 측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축소, 경기 둔화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서도 비은행 계열사의 양호한 성과, 건전성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전년 동기과 유사한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실제 증권, 보험, 카드 등 비은행부

은 1.71%로 전분기 대비 각각 0.13포인트 내렸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자산 수익률 리프라이징 가속화, 부담대 급등 등 NIM 하락 요인이 3분기에 집중된 영향이다. 9월 말 기준 보통주자본(CET1) 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85%, 16.75%였다.

계열사별 실적을 보면 KB국민은행은 3분기 누적순이익 2조61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 3분기 순이익은 1조1120억원이었다. KB증권은 3분기 누적 순이익 54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4% 늘었고, KB손해보험

도 8.8% 증가한 7400억원이었다. KB국민카드 순이익은 카드 이용금액 증가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36% 증가한 3704억원이었다.

◇ "CET1 13% 초과 잉여자본 주주 환원"

KB금융은 이날 타사와 차별화된 주주환원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KB금융은 내년부터 CET1비율 13%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총주주환원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연말 CET1비율 13%가 넘는 잉여자본은 2025년 1차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2025년 연중 13.5%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하반기 자사주·매입 소각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CET1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총주주환원율도 증가하는 구조다.

KB금융은 중장기적인 목표치가 아닌 즉각적으로 주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점이 특징이다. KB금융은 올해 9월 말 기준 CET1 비율이 13.85%였고, 작년 말 기준으로도 13.58%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10년간 CET1 비율 13%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KB금융의 주주환원에 대한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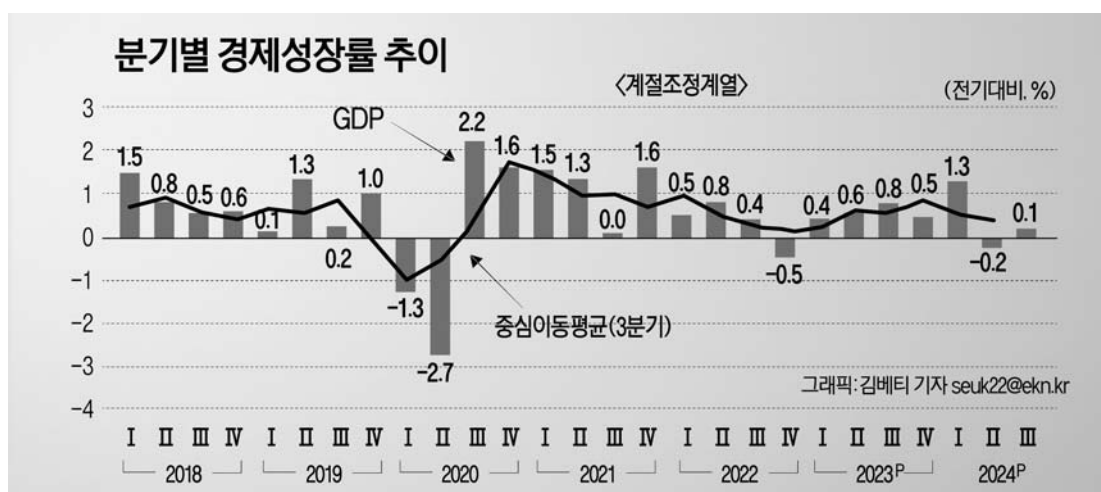
'주당가치 성장'으로 내걸고 연평균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10% 수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연평균 1000만주 이상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위험가중자산수익률(RORWA) 중심으로 수익성을 강화하고,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을 과거 10년 평균 수준(6.1%) 이하로 관리해 CET1 비율을 연간 13%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1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의했다. 이 회사가 지난 7월까지 총 7200억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한 점을 고려하면 KB금융의 올해 연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는 8200억원에 달한다. 3분기 주당 배당금은 795원으로 올해 1분기(784원), 2분기(791원)보다 상향됐다. KB금융그룹 재무담당 임원은 "올해 총 82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은 업계 최대 규모"라며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당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다"고 밝혔다.

KB금융은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홈페이지 내 밸류업 계산기를 신설하고, 내년 연간 실적발표회에서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ast106@ekn.kr](mailto:yast106@ekn.kr)

3분기 경제성장률 0.1% 그쳐...올 2.4% 성장 '빨간불'

2분기 -0.2% 성장에 비해 한분기만 플러스로 돌아서 3분기 성장률 한은 8월 예상 0.5%보다 0.4%p 낮은 수준 성장률 예상치 하회한 것은 수출 감소로 돌아섰기 때문 한은 "작년 대비 올해 교역여건 좋아져 호조세는 이어질 것"



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이 줄었지만,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운수업 등이 늘어 0.2% 증가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5% 늘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1%)을 상회했다.

올해 3분기 수출이 뒷걸음질치면서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데 그쳤다. 2분기 -0.2% 성장에서 한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2.4%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작년 동기 대비, 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 성장했다. 3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8월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지만, 1분기 1.3%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2분기 -0.2%로 뒷걸음질쳤다가 3분기 겨우 역성장을 면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내수는 회복 흐름을 보인 반면 수출은 감소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민간 소비는 승용차, 통신키트 등 재재화와 의

료, 운수 등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0.5% 성장했다. 정부소비도 사회보장현물수혜(건강보험급여)를 중심으로 0.6%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6.9% 증가했다. 이와 달리 건설 투자는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2.8% 감소했다. 특히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0.4% 감소했다. 그간 한국 수출을 견인한 IT부문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자동차, 화학제품 등 IT부문의 수출이 예상보다 더 부진했기 때문이다. 수출은 2022년 4분기 3.7% 감소한 이후 작년 1분기(4.2%)부터 올해 2분기(1.2%)까지 6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3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1.5%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IT부문 수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늘

면서 3분기 조정 측면이 있었다"며 "IT는 수출에 플러스로 기여했지만, 기여폭은 둔화됐고, 자동차의 경우 한국GM 파업 등으로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8%포인트를 기록했다. 순수출이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렸다는 의미다. 건설투자가 한국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렸다. 다만 내수는 3분기 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올렸다. 내수의 세부 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설비투자 0.6%포인트, 민간소비 0.2%포인트, 정부소비 0.1%포인트 등이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3.4% 증가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0.2% 늘었다. 전기가수도사업은 전기업 등이 늘어 5.1% 증가했고,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7% 감소했

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이 줄었지만,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운수업 등이 늘어 0.2% 증가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5% 늘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1%)을 상회했다.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치면서 당초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 2.4%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성장률이 2.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 1.2%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사실상 2.4% 달성은 어렵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수의 경우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나, 건설업은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수출 감소를 짐체나 부진으로 보기에 시가상조라고 했다. 한은 관계자는 "3분기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수출 증가를 자체는 둔화될 수 있지만, 작년 대비 올해 교역여건이 좋아졌고, IT부문의 업사이클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면 호조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유라 기자](mailto:nayura@ekn.kr)

기업체감경기 4개월만 반등...내달은 '악화'

10월 전산업 CBSI 전월비 0.9p 오른 92.1...11월 전망 CBSI 89.8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부두에서 선적 및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한국, 미국 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4개월만 반등했다. 다만 경기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11월 전망은 다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9포인트(p) 오른 92.1이었다. 전산업 CBSI는 6월부터 하락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업종, 자금사정 등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수다. 해당 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 심리가 과거(2003년~2023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을 하회하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 예고 등이 CBS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CBSI는 전월 대비 1.7포인트 오른 92.6을, 비제조업은 0.3포인트 상승한 91.7이었다. 제조업의 CBSI는 제품재고(+1.7포인트), 자금사정(+1.3포인트)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다. 반면 생산(-0.4포인트), 신규수주(-0.8포인트) 등은 부진했다. 비제조업은 자금사정(+1.5포인트)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채산성과 매출은 각각 1.0포인트, 0.3포인트 악

화됐다. 세부 업종별 BSI를 보면 보면 제조업 중 자동차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소비자 구매여력 개선, 완성차 수출 증가로 자금사정은 11포인트 올랐고, 제품재고는 8포인트 떨어졌다. 전기장비 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9포인트(p) 오른 92.1이었다. 전산업 CBSI는 6월부터 하락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업종, 자금사정 등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수다. 해당 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 심리가 과거(2003년~2023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을 하회하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 예고 등이 CBS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CBSI는 전월 대비 1.7포인트 오른 92.6을, 비제조업은 0.3포인트 상승한 91.7이었다. 제조업의 CBSI는 제품재고(+1.7포인트), 자금사정(+1.3포인트)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다. 반면 생산(-0.4포인트), 신규수주(-0.8포인트) 등은 부진했다. 비제조업은 자금사정(+1.5포인트)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채산성과 매출은 각각 1.0포인트, 0.3포인트 악

"산업은행, 新성장 엔진 투자 소홀"

국회 정무위 국감...스타트업 지원 2020년 5.3조→올해 1.6조 등 지적

KDB산업은행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줄이고 있어 미래 '신(新)성장엔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2020년 5조 3000억원에서 지난 8월 기준 1조 6000억원으로 약 70% 급감했다. 산은의 풍력과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승인 금액과 건수도 크게 줄었다. 산은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승인 건수는 2014년 1401건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조 873억원까지 늘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감해 지난달 기준 2463억원을 기록했다. 국제적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운동이 확산되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외국 완성차 업체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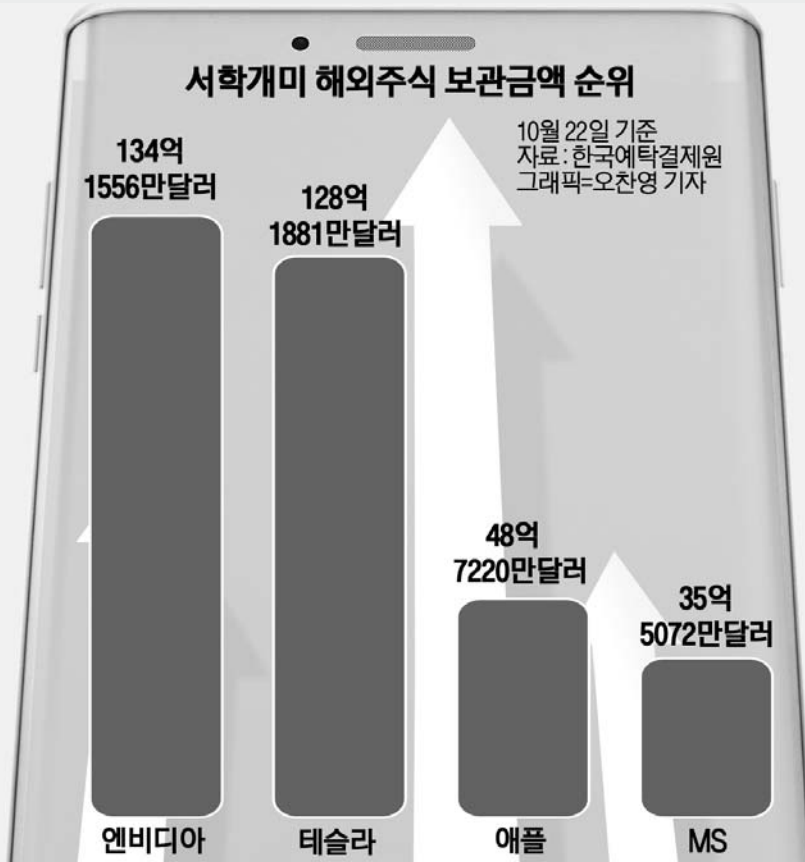
따라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은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의원은 "산업은행이 신성장엔진에는 무관심하다"며 "분점 이전을 통한 신규용 중심 개척을 외치지만 정작 신성장엔진 투자는 소홀히 한다면 분점이 전 필요성에 대한 산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뿐"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mailto:sdur@ekn.kr)

서학개미 최애 주식은?...엔비디아 vs 테슬라 '시소게임 중'

서학개미 보관금액 1위 자리 경쟁...이달에만 두번째 순위 바뀜
엔비디아 134억1556만달러 1위...테슬라 128억1881만달러 2위
테슬라 3분기 호실적 발표로 투심 이동...상승세가 분수령 될듯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서학개미 보관 금액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달에만 벌써 두 번이나 순위가 바뀐 데다 실적 발표 등 이슈가 이어지면서 순위 변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은 엔비디아로 보관금액은 134억1556만달러(약 18조5000억원)로 집계됐다. 이어 테슬라가 128억1881만달러(약 17조6784억원)로 2위를 차지했다.
테슬라는 지난 2020년부터 약 4년간 서학개미 보관금액 부동의 1위였지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여파로 힘을 잃으면서 올 들어 엔비디아에 1위 자리를 수차례 내줬다.

이달에는 순위 변동이 더 잦았다. 지난 10일 서학개미 보관금액은 테슬라(137억7914만달러)가 엔비디아(129억4616만달러)보다 많았지만 다음날인 11일 엔비디아가 128억9744만달러, 테슬라가 125억5992만달러로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앞섰다. 이후 지난 15일 테슬라가 다시 엔비디아를 앞서 보관금액 1위를 차지했다가 18일 다시 엔비디아에 재역전되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로 이달 들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보관금액 규모를 키워왔다. 엔비디아는 지난 14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일주일 후인 지난 21



일 또 한 번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시가총액도 3조5000억달러(약 4829조원)를 돌파하기도 했다.
월가에서도 엔비디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엔비디아 목표가를 기존 165달러에서 190달러로 높였다. 이렇듯 엔비디아의 질주에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보관금액 격차는 지난 22일 기준 6억달러 넘게 벌어졌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날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살아나는 양상이다.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 3분기 주당순이익이 0.72달러로 월가의 평균 예상치인 0.58달러를 뛰어넘었다. 매출은 251억8200만달러(약 34조7814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난 27억1700만달러(약 3조7527억원)를 기록했다. 영업이

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3.2%포인트(p) 증가한 10.8%로 집계됐다. 호실적에 힘입어 테슬라는 이날 새벽 5시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전 거래일 대비 12.10% 급등했다.
호실적 기대감에 서학개미들의 투심 역시 테슬라로 이동하고 있다. 이달 서학개미 순매수 규모 1위와 2위는 각각 '다렉시온 테일리 테슬라 2X 셰어즈'와 테슬라로 모두 테슬라 관련 종목이 차지했다.
증권가에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테슬라 상승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희승 iM증권 연구원은 "테슬라가 실적 발표와 함께 향후 2년간의 신제품 타임라인을 공개했다"며 "재무적 성과와 기술 발전 속도,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코스피 2580선까지 후퇴 24일 오후 서울 증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증가는 전 거래일보다 18.59포인트(0.72%) 내린 2,581.03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60포인트(1.42%) 내린 734.59로 마감했다.

토스인사이트 신임 대표에 손병두 선임

(前 거래소 이사장)

금융 정책 전문가로 적임자

토스 커뮤니티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Toss Insight)'가 신임 대표로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선임한다고 24일 밝혔다.
손 대표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를 받았다.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199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0년에는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등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거치며 금융 민영화, 핀테크 정책,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업구조조정 업무 등을 주도했다.
2014년에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했다. 2019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신임 대표

(차관급)을 역임하였고, 2020년 12월 제7대 한국거래소 이사에 취임해 2024년 2월까지 재직했다. 이후 한국거래소 고문으로 활동하다 이번

에 토스인사이트에 합류하게 됐다. 토스인사이트는 핀테크 업권을 중심으로 금융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금융산업 전반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금융기관으로서 토스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토스인사이트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금융 정책 전문가인 손신임 대표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금융 혁신을 주도해온 토스의 모습을 늘 인상 깊게 지켜봐왔다"며 "앞으로 새로운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토스의 특별한 여정에 힘을 보탬 것"이라고 말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고려아연, 주주환원 기업 1위”...소액주주도 인정했다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가치 증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며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금융사·지주사를 제외한 7개의 주주환원 우수 기업을 선정했다. 이들은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환원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영권 분쟁 이슈로 떠오른 고려아연은 이달 대규모 주주환원책을 공시했다. 2조6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소각과 2026년까지 총주주환원율 40% 이상을 목표로 한다.

고려아연은 이전부터 국내 증시 대표 배당주로 꼽혀왔다. 연간 배당금은 2020년 2651억원, 2021년 3535억원, 2022년 3973억원, 2023년 4027억원으로 증가해왔다.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인 올 8월에도 주당 1만원의 중간 배당을 공시한 바 있다. 최근 10년간 배당금 규모가 7배 증가했다는 점에서 주주환원 노력이 두드러진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국내 증시 대표 배당주로 손꼽아 2026년까지 주주환원율 40% 목표 SKT·KT·제일기획 등도 고배당



영풍정밀도 최근 5년간 평균 배당성향이 39.35%에 이른다. 과거 3%대였던 현금배당수익률이 지난해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4.62%까지 올랐다. 주주환원에 성실한 기업을 모아놓은 'ACE 주주환원가치주 액티브 ETF'에도 높은 비중으로 포함됐다.
SK텔레콤도 정통 고배당주로서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2020년~2023년동안 총 배당금이 7151억원에서 7622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분기 배당금을 1050원으로 깜짝 상승해 호평을 받았다. 연내에도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추가적인 주주환

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같은 통신사인 KT도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고배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18조원의 매출을 올려 올 상반기 현금 보유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내년까지 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할 계획이며 구조조정에 의한 실적 개선 가능성도 크다. 내년 1분기에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일회성 이익은 특별 배당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KT의 환원수익률을 6.2%, 특별 배당을 포함하면 8%대로 전망하고 있다.
제일기획은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하고 있다. 작년에 공약한 대로 올해도 배당 성장 60%내에서 주주환원이 진행 중이다.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도 2017년(1565억원)부터 2023년(3075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로 인해 꾸준한 성장에 기반한 배당 확대라는 모범사례로 꼽힌다. 최근 발표된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됐으며 내년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KT&G는 상장 이후 매년 배당을 실시하며 '배당 황제주'로 평가받고 있다. 지지부진한 주가로 오랜 기간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을 받아 주주환원도

계속 확대돼왔다. 최근 3년간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1조7500억원의 현금 배당을 통해 총주주환원율 95.2%를 기록했다.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오는 2026년까지 2조8000억원의 현금 환원과 발행주식의 약 15%를 자사주 소각할 계획이다.
리노공업은 작년 코스닥 주주 배당금 1위 기업이다. 작년 순이익 1109억원 중 455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했다. 2014년 주당 400원의 배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배당을 줄인 적이 없다. 작년 배당금은 주당 3000원에 달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상당한 글로벌 점유율을 보유한 만큼 실적도 매년 성장 중이며 보유 현금도 3525억원(상반기 말 기준)을 쌓았다. 부채 비율은 7.3%에 불과한 무차입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배당의 원천으로 꼽힌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고배당주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미래에 꾸준한 주주환원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들을 꼽았다"며 "제일기획과 KT&G는 본업경쟁력·주주행동이 우수한 주주환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필요”

김용만 의원, 정부위 국감서 강조 “비상적인 쏠림 현상 우려” 지적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용료율 지급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지적은 올 7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지급해야 한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당시 벌어진 경쟁 과열을 두고 제기됐다. 당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법률 시행 당일까지 경쟁 업체를 의식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거듭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빚썸에서 이용료율 연 4.0%를 공시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지로 6시간만에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이복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에 관련된 세부 기준이 없어 향후 또다른 경쟁 과열이 우려된다”며 “업계 자율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기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어 “은행과 증권사의 이자율·이용료율에 대해서도 모범규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코인 거래를 하지 않는 투자자도 가상자산거래소 이용료율에 흑해 돈을 넣는 등 비정상적인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서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지적하신 부분에 내부적으로 방법을 잘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성우창 기자

ENERGY INDEX (23일)	
원유 (달러/배럴)	
브렌트	-1.08 74.96
두바이	+0.31 74.41
광물	
금 (달러/온스)	-33.46 2715.55
은 (센트/온스)	-1.20 33.84
동 (센트/파운드)	-4.40 433.65
납 (달러/톤)	-5.76 2028.11
아연 (달러/톤)	+40.66 3202.25

SAMSUNG 삼성선물 거래문의: 02-3707-3699

**일요일까지 맑은 가을 날씨
27~29일 영동·남부 비 예보**

주말인 26일까지 맑고 온화한 가을날씨가 이어지겠다. 일교차는 매우 커 밤과 아침에는 날씨가 쌀쌀해진다. 반면 일요일인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까지 우리나라는 이동성고기압 영향을 받겠다.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예정이다.

25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5~16도(°C), 낮 최고기온은 20~25도겠다. 26일은 최저기온이 최고기온이 각각 8~15도, 20~24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부터 28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29일에는 동해상에 빠져나간 기압골에서 동풍이 불면서 강원영동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수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가 내린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다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가을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한수원, SMR 가상플랫폼 활용
노심해석코드 프로그래밍 개발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현재 개발중인 소형원자로(SMR) 가상플랫폼 사업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고, 4세대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적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소형원자로 가상플랫폼은 디지털트윈으로 소형원자로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한수원은 최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대학교와 함께 GPU(그래픽 처리 장치) 기반 원자력발전소 노심해석 전산코드인 프로그래밍(P-RAGMA, Power Reactor Analysis using GPU-based Monte Carlo Algorithm)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심해석 전산코드는 원자로 노심의 중성자 활동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래밍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안전성을 초정밀도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선두 기술로 알려져 있다. 한수원과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열 연료 원료를 목표로 기존의 CPU(중앙처리장치)를 이용한 기술에서 벗어나(GPU 기반)로 국내 순수 인력과 고수 기술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고 있다. 프로그래밍은 기존 전산코드와 비교해 계산 속도가 약 50~100배 이상 빠르며, 대규모 데이터 처리도 가능하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 향후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2024 국정감사

“송전망 확충 시급’ 공감대…인센티브 등 특단 대책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지난 감사과정에서 반복됐던 ‘체코발전’, ‘대양고래’ 이슈 대신 시급한 현안인 송전망 확충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등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이 송전망 확충을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민원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질의에 나선 이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동해안과 발전기들의 송전제약을 언급하면서 “세계적으로 초전력 수요 산업 즉 A라든가 반도체 산업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계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실어나를 전력망 확충이 안되고 있다”며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했을 때 첫째는 주민 민원으로 사업 지연된 사례들이 굉장히

이인주 의원 “한전이 해결 못하면 전력기금 활용해 보상 확대해야” 안덕근 장관 “최우선 과제, 전력망확충특별법 통과면 전력기금 활용”

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5년 지연도 문제지만 12년이나 지연된 사례도 있다. 신규 사업을 하나 기획하고 시작했을 때 한 2~3년 안에 끝나야 한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이러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적자로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전 적자가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 송전망 건설도 굉장히 지연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한전한테만 맡겨놓을 거냐.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라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다 시행하고 있다. 빨리 합의를 하면 추가 보상을 더 해준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국가가 전력기금 등 보상금을 마련해 돈을 더 쓰거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진국들은 투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미 법안에 다 제정을 해놓음으로써 국가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 전력망을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저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 민가 주변에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법안이라도 내든지 협력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 의원님 말씀하신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 100번 동감하는 바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꼭 유념하고 있겠다”며 “산업부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한전에서 이 전력망을 보충하는 부분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산자위에서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에 그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부도 발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이인주 의원이 지적한 대로 유럽에서 민원이 조기 타결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할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히 반대해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 지역이나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보상이 더 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국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 산업부에 끌려다니지 않는 독립적 기후정책 필요”

환경노동위원회

한노위 국감에서 환경부가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며, 산업정책을 맡는 산업부에 끌려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쓴 소리가 나왔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전국 14개 기후대응팀 건설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부가 진정으로 역할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기후 적응 데이터를 모아 다른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이 제도는 일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일회용 컵을 감량하는 것이 원천적인

민주당 “기후대응팀 후보지 14곳 선정 과정 불투명…재검토 필요” 김완섭 장관 “강제 추진 없을 것, 과학적 근거·주민의견 수렴할 것”



24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노위 민주당 위원들은 14개 기후대응팀 건설 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많이 지적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30일 발표된 신규 팀 후보지 14곳의 선

정 과정이 매우 비공개적이고 무책임하게 진행됐다”며 “소초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가 회의록도 없이 실무진 회의로 결정된 것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서식지 파괴, 탄소 배출, 수질 피해 등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마치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7월 대통령실에 제출한 기후대응팀 후보지 검토 문서에서 양구 밤성골댐, 단양 충주보조댐, 청양 지천댐 등 반대가 예상되는 지역을 명시하고도 일방적으로 팀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과거에도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단순히 지역이 기후위기가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신규 팀 건설을 강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절차

적 투명성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상청의 예보 정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재난 예측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기상청의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사업 상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동인 기상청장은 상설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전환과 기후 위기 문제 해결에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전 세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극적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본인 재생 에너지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고, 글로벌 경쟁에서 낙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에너지전환 정책이 권력이 바뀌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자 목표로 강조하겠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대응팀’ 반발 거세…지역 주민들 국회서 철회 촉구

야당·대책위 ‘기후대응팀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수입천·단양천·지천·동북천댐 주민 반대로 설명회 못 열어 “환경부 기후대응 정책 허술… 주민 갈등 초래·혼란 가중”

기후대응팀 건설 후보지로 뽑힌 지역의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와 환경부의 기후대응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등 기후대응팀 건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학영·김주영·강득구·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 건설반대시민모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신규팀 반대 지역대책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대응팀

이라는 이름으로 14개의 신규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지역소멸과 환경파괴를 우려해 반대하는 주민조직이 구성됐다.

기후대응팀 후보지 10곳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됐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북천댐 등 4곳에서는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14개 팀 가운데 10개의 팀 계획을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국회에 광역자치단체



환경부 기후대응팀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야당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후대응팀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에 회람했다. 나머지 4개팀에 대해서는 ‘기후대응팀 후보지(안)’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켰다. 즉 주민들이 반대하지만 이들 팀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책위원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10개의 팀 가운데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팀은 단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의 팀은 각 지역의 신정에 따라 계획된 팀”이라며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기

후대응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어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범 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이미 지난 2015년에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킨 경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이틀만 바뀌 다시 추진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민 설명회 당일 경찰을 동원해 설명회를 방해하며 강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현 정부의 강제적인 댐 건설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광빈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 부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은 지난 30년 동안 세 차례나 주민 반대로 저지됐으나, 이번에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으며 충분한 협의 없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도 제네시스답게 GENESIS ELECTRIFIED G80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Electrified G80 : 복합4.4km/kwh(도심:4.6km/kwh, 고속도로:4.3km/kwh) | CO₂배출량:0g/km | 1회충전주행거리:475km | 축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523V(180.9Ah) | 공차중량:2,355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시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제네시스는 지정/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인데 기술자 사외이사 '전무'...위기감에 이사 구성 지적도

기술 전문성 부족한데 제품 전략·경쟁력·미래 기술 논의 TSMC·SK하이닉스, 전현직 반도체 전문가들 대거 기용 기업거버넌스포럼 '외국인 중심 이사회로 재구성해야'

삼성전자가 전방위적 위기를 인식한 가운데 경영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사외이사 구성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쟁사들은 기술 전문가를 적극 배치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어서다.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전영현 부회장의 '반성문'에 입각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사회는 총 10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4명은 한총회 대표이사(부회장)·노태문 MX 사업부장·박학규 경영지원실장(사장)·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사장) 등 사내이사들이다.

나머지 6명은 사외이사들로 김한조 하남금융나눔재단 이사장·김준성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최고투자책임자(CIO)·

허은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 교수·신제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조혜경 한성대학교 AI 응용학과 교수로 이뤄져 있다.

사외이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자의 전문 분야는 재무·금융·투자·리스크 관리·환경·에너지·로봇·AI이고, 활동 분야는 사내이사들과는 달리 '전사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로 명시해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김한조 사외이사는 삼성·나눔 경영 역량을 발휘해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준성 사외이사는 글로벌 선진 금융 시장에서 주식 시장 분석과 투자 경험을 쌓은 국제 경제·투자 전문가로, 해외 시장·외

국 투자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트렌디한 투자 전략 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봤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유명희 사외이사는 국제 통상 전문가로, 외교적 소통 노하우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투자자·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 샀다"며 "신제윤 사외이사는 제4대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금융·재정 전문가로, 회사 자금 운용·글로벌 전략 등 다방면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기술 이해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혜경 사외이사의 경우 19대 한국로봇학회장을 지낸 바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모바일·가전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

실질상 삼성전자 사외이사직을 금융·회계 전문가와 전직 고위 관리 출신들이 차지한 셈이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술 발전

을 이끄는 회피와 재무 실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외이사 6명 중 4명은 내년 3월과 11월 중, 나머지 2명은 2027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처럼 사외이사들은 현업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상 전무함에도 삼성전자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자신들로부터 이뤄진 회의에서 △미래 기술·디자인 데모 △가전사업부 운영 현황 보고·현장 답사 △신제품 언팩 행사 참석·제품 전략 논의 △시스템 반도체 현황 보고·사업 전략 논의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현황 보고·사업 전략 논의 △모바일 현황·전략 제품 서비스는 △메모리 현황·사업 경쟁력 관련 논의 등을 다뤘던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 측은 "사외이사들이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사는 사업부별 경영 현황 보고와 현장 경영 강화를 위한 '원데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술 전문

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경우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어 제한을 뒀다"며 "별도의 자문 기구를 뒤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경쟁사들은 사외이사전에 업계 전문가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평가들은 "반성문"을 통해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삼성전자가 위기를 맞은 이유 중 하나는 핵심 이슈에 대해 경영진에 쓴 잔소리를 하는 독립성을 지닌 사외이사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사회 10명 모두 한국인이고 사외이사 6명 중 4명이 IT 비전문가로, 글로벌 IT 기업으로서 지극히 적합하지 않은 이사회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소프트웨어(SW) 등 IT와 전략·거버넌스 리더 등 외국인 중심으로 이사회를 재구성하라"며 "기술 중심 회사로 다시 태어나려면 기술 인력 급여가 경영 지원·마케팅 등 후순 부서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순한 맛' 전기요금 인상... '반도체 2강' 삼성·SK 온도차는 존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이 국내 반도체 양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당장의 요금 인상 폭이 크지 않아 두 기업 모두 감내할 수준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인상에 따른 실적 차이로 인해 체감 부담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된다. 기존 대비 kWh당 16.9원이 오르는 것이다. 산업용 요금은 계약전력 300kW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제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핵심 업종인 반도체 업체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려될 정도의 부담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SK하이닉스의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21년 1만921GWh에서 2022년 1만2083GWh로 1162GWh 증가했다. 약 10.64%의 증가율이다. 증가는 2022년부터 관련 수치를 해의 사업장의 전력 사용량을 합산한 영향이다.

이러한 증가율을 2023년 총 전력 사용량에 적용해 예상할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2023년 총 전력 사용량은 1만2011GWh(120억1100만kWh)다. 이 수치의 약 90.4%가 국내 전력 사용량으로 추정

된다. 이를 킬로와트시로 환산하면 108억5600만kWh다.

SK하이닉스의 2023년 총 전력 사용량은 1만2011GWh(120억1100만kWh)다. SK하이닉스의 국내 전력 사용량은 약 1만856GWh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킬로와트시로 환산하면 108억5600만kWh다. 이를 바탕으로 SK하이닉스의 추가 전기요금 부담을 계산하면, 108억5600만kWh에 kWh당 인상분 16.9원을 곱한 약 1835억원이 된다. 이는 연간 기준이며, 분기로 환산하면 약 459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7조300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17조5731억원이다.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5%에 그친다. 매출액 대비로는 0.26%에 불과하다.

사용량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 내 전력 사용량이 23.217GWh(232억1700만kWh)로 SK



하이닉스 국내 추정 사용량의 약 2.14배다. 이는 삼성전자의 국내 생산기지 규모가 더 크고, 생산제품군이 더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에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을 킬로와트시 단위로 계산하면 232억1700만kWh며, 여기에 kWh당 인상분 16.9원을 곱하면 연간 약 3924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분기로 환산하면 981억원이다.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매출은 79조 원, 영업이익은 9조1000억 원 수준이다. 결국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8%에 그친다. 매출액 대비로는 0.12%에 불과

하다.

전기요금은 반도체 기업의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전력은 필수적인 요소로, 압력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특히 AI 호황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실적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서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업황 변화에 따라 두 기업의 체감 부담은 더욱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전기요금 인상이 두 기업 모두 당장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라며 "2022년 이후 지속된 전기요금 인상의 누적 효과와 반도체 업황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향후 실적 흐름에 따라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SK이노베이션, 3개 계열사 사장 인사 단행

SK에너지 김중화·SK지오센트릭 최안섭·SK아이이테크 이상민 선임 이공계 출신으로 기술·현장 집중 역량 갖춰...운영개선 측면 성과 기대



김중화
SK에너지 사장



최안섭
SK지오센트릭 사장



이상민
SK아이이테크 사장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아이이테크 등 3개 SK이노베이션 계열사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역량을 갖춘 사장을 새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사장들은 모두 이공계 출신으로, 기술과 현장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SK이노베이션 계열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운영 개선(Operational Improvement)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SK이노베이션 측은 설명했다.

SK에너지 사장으로 선임된 김중화 SK에너지 울산 CLX 총괄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정유, 화학사업을 두루 경험한 울산 CLX내 최고의 생산 전문가다. 최유가 변동과 같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공정 운영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지오센트릭 사장으로 선임된 최안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과반 미확보에 '지분싸움' 2R 돌입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종료되면서 40여일 동안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영풍 사이의 치열했던 자금 전쟁이 일단락됐다. 양측 모두 공개매수를 통해 확실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향후 법정과 주주총회에서 장기간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이 원하는 전장과 승리를 달린 것이 눈에 띈다. 이전까지는 양측 모두 공개매수에 올인했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영역에 방점을 둘 수 있게 됐다. MBK·영풍은 확보한 지분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반면 두 번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한 최 회장 측은 시세조종 혐의 등 상대방의 법적 리스크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산업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

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이 마무리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당초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 목표 수량(발행주식총수의 20%)을 모두 달성하더라도 최 회장 측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은 36.49%에 그친다. 배안개피탈이 매입하는 지분 2.5%를 제외하면 고려아연이 매입하는 17.5%의 지분은 의견권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종료된 공개매수로 인해 MBK·영풍이 38.47%의 지분을 확보한 것을 감안하면 양측 모두 과반수 지분 확보에 실패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는 못한 셈이다. 결국 자금 전쟁 이후 2라운드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우선 최 회장 측보다 더 높은 지분율을 확보한 MBK·영풍은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승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순탄하게 풀릴지는 미지수다. MBK·영풍은 이번엔 확보한 지분을 바탕으로 최 회장 측에 대해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에 13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 중 영풍 측인 장형진 고문을 제외한 12명 모두 최 회장의 우호인사로 분류된다. 때문에 MBK·영풍 측에 우호적인 인원 12명을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시켜 과반수를 확보해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원에 소집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주주총회 시기는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내년 초에는 정기 주주총회도 예정됐던 만큼 결국 이사회 선임을 둘러싸고 표 대결 자체는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최 회장 측에서는 상대의 법적 리스크를 최대한 공략해 표 대결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7.83%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받으면 표 대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가 종료되기 직전인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MBK·영풍의 공개매수가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박기덕 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려아연 사장은 "MBK·영풍 공개매수는 원천무효라고 생각하고 법적 검토"이라며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수사와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BK·영풍 측의 공개매수 종료일에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

어내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 다며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내고 관련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이 법정 소송에 방점을 두는 것은 최근 두 차례 중요 판결에서 승소한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 측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가처분이 기각되지 않았다면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최 회장 측이 매우 불리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이 두 차례나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계 관계자는 "공개매수에서 양측 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전략에 따라서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이젠 5G 넘어 6G다”...통신3사, 미래 기술 확보 경쟁 ‘활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다만 향후 시장 안착에 성공하기 위해선 적합한 활용 사례 발굴과 수익모델(BM)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6G가 5세대 이동통신(5G)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5G보다 약 50배가량 빠른 1테라비트(1Tbps) 속도 구현이 가능해 인공지능(AI)·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기술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오는 2028년~2030년 사이 글로벌 표준화 작업 등을 거쳐 상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SKT는 지난 15일 공개한 6G 백서를 통해 텔코

6G, 5G보다 50배 빠른 1Tbps 속도 구현...AI 등 차세대 기술 필수 인프라로 주목 SKT, ‘6G 백서’서 텔코 예지 AI 기반 인프라 제시...서비스 지연↓·보안성↑ KT, 국내외 기업 협력 등 적극 행보...LG U+, 비저상 네트워크 기술 개발 총력 업계, 6G 구축과 함께 ‘킬러 서비스’도 구상...“활용 사례 지속 발굴해 나가야”

예지 AI 기반 차세대 통신 인프라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통신 인프라와 AI의 결합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 지연을 줄이고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이 회사는 6G가 상용화되면 데이터 트래픽 수요와 특화 서비스를 고려해 이전 세대 이동통신

을 적절히 혼용하는 ‘세대 혼합’ 기반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생태계 협력 △유망 사업 모델 발굴 △무선접속망·코어망·전송망·디바이스·AI 오케스트레이션 등 영역별 기술진보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KT는 6G 연구·개발을 위해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을 넓히고 있다. 노키아와 오픈랜 기술·6G 후보 주파수를 이용한 초광대역 무선 접속 기술 등을 개발 중인 가운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네트워크 현대화·6G 분야를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LG전자와는 6G 후보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전이중 통신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기술은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서 업링크·다운링크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이다. 개발에 성공한다면 주파수 효율을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6G와 이전 세대 통신 기술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비저상 네트워크’를 지목하고 개념 검증 및 기술 개발에 나섰다. 이는 통신 위성,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고고도 플랫폼 무선국(HAPS) 등 공중·우주 인프라를 활용하는 네트



SK텔레콤 한 직원이 지난 15일 출간한 자사 6G 백서를 읽고 있다.

워크다. 이를 통해 5G가 제공하는 고속 데이터 통신과 저지연성 범위가 공중·우주 영역까지 확장돼 3차원 통신 시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고객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통신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통신 기술 대표 협의체 ‘6G 포럼’ △국제표준화기구 ‘3GPP’의 표준화 과정 등에 참여해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엔 데이터 효율을 위해 위성과 엣지 컴퓨팅을 결합한 위성 데이터센터도 구축할 전망이다.

업계는 6G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킬러 서비

스’ 구상에도 나설 전망이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을 당시 산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서비스 활성화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가 6G 상용화 이후에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네트워크 인프라 성능 향상뿐 아니라 미래 기술과 융합한 서비스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 분석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화 가능성이나 활용 분야에 대한 현재 단언할 수 없지만,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용화 이전까지 활용 사례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HD현대, 건설현장 효율성·친환경성↑ 솔루션 공개

HD현대사이트솔루션·현대건설기계 등 ‘한국국제건설기계전’ 참가 노동력 감소·중대재해·탄소중립 대응가능 제품 선보여...시장 입지 강화

HD현대그룹의 건설기계 계열사들이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노동력 감소, 중대재해 발생, 탄소중립 이슈에 대응 가능한 제품으로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CONEX2024)’에 전시된 HD현대건설기계의 35t급 휠로더 ‘HL985A’

HD현대의 건설기계 중간 지주사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24일부터 나흘간 ‘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이 열리는 일산 킨텍스에서 안전·생산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스마트 건설 현장 구현을 위한 건설장비와 기술을 선보였다.

HD현대건설기계는 50t급 굴착기 ‘HX520A’와 35t급 휠로더 ‘HL985A’ 등 대형 장비뿐 아니라 ‘HX17AZ’를 비롯한 소형 라인업도 소개했다.

미니굴착기와 소형 굴삭기 등 소형장비는 도심과 농가를 비롯한 지역에서 작업이 용이한 덕분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건설기계도 내년 2분기까지 미니굴착기 생산력을 9600대에서 1만5400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HD현대건설기계는 2040년까지 제품 포트폴리오의 98%를 연비 개선 및 전동화·수소 모델로 채운다는 전략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2025년형 2t급 전기 굴착기 ‘HX20E’ 및 급속 충전스테이션도 볼 수 있었다.

이는 40kWh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로, 일일 최대 9시간 작업이 가능하고 소음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내 고객 작업장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마쳤고, 북미와 유럽 등 국내외에서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머신가이던스 기술과 센서로 장비의 위치 및 자세를 실시간 감지하고 이를 토대로 작업 가이드를 제공하는 ‘하이 어시스트 2D MG+’, 자체 개발한 원격 장비 관리 시스템 ‘하이메이트’를 비롯한 기술도 소개했다.

HD현대로보틱스의 아크 용접 로봇 솔루션도 볼 수 있었다. 이는 굴착기 암과 상·하부 구조물 생산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으로, HD현대건설기계는 중국 강소·인도 푸네 공장의 용접 공정 자동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브라질 공장에도 용접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HD현대인프라코어도 1.9t급 전기 굴착기 DX20ZE, 35kWh급 BC05 수냉식 배터리팩, 11L급 수소연소엔진 ‘HX12’ 등 탄소중립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전시했다.

55t급 굴착기 ‘DX550LC-7’와 15t급 굴착기 ‘DX-150W-7’ 뿐 아니라 △DX10Z-7K △DX17Z-7 △DX35Z-7를 포함한 미니굴착기 풀라인업도 부스에 배치했다.

ICT 기술로 채색장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 ‘쿼리엑스’도 소개했다. 클라우드 기술 등을 활용해 석산 현장 장비 운영과 자재 생산·운송 및 안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화성탐사 콘셉트의 디오라마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곳에서는 건설장비를 14분의 1 비율로 축소한 RC모델들이 자재를 옮기고 25~30도의 경사로를 오르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전 세계 20개국 237개사가 참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LG전자, 3Q 매출 22.2조 ‘역대 최대’...영업익은 20.9%↓

LG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22조1764억원, 영업이익 7519억원, 당기순이익 902억원을 기록했다고 확정 실적을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7% 늘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9%, 81.4% 줄었다.

LG전자 관계자는 “매출은 역대 3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시장 수요 회복 지연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이외에도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 5월 미국의 대(對) 중국 관세 인상 발표 이후 국제 수출입을 앞당기려는 수요가 폭증하는 등 불가피한 외부 환경에 맞서 글로벌 해상 운임 상승이 비용 증가 요인

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사업 방식 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B2B의 꾸준한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품판매 위주 사업 대비 수익성이 높은 플랫폼 기반 콘텐츠·서비스 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배터리팩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부터 관련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재무제표상 중단 영업손익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과거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또한 함께 조정된다고도 했다.

박규민 기자 kevinpark@ekn.kr

인천 유일 탄소중립 ·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화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

그린에너지텍 2024 GreenEnerTEC

2024. 10. 30(수) - 11. 01(금) ◆ 인천 송도컨벤시아 Hall 4

주최: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주관: 인천광역시경제진흥원, GMEG (유해화학물질안전원), 인천대 친환경플라스틱센터, 인천광역시경제진흥원

전시품목:

- 신재생에너지
- 탄소중립
- 수자원
- 기후변화&대기
- 순환경제
- 친환경 플라스틱

동시 개최:

- 제3회 국제 친환경 플라스틱 컨퍼런스 | 10. 30(수)
- 2024 그린에너지텍 ESG 컨퍼런스 | 10. 30(수) - 11. 01(금)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비 설명회 | 10. 31(목)
-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 | 11. 01(금)
- 그린에너지텍 해외 수출상담회 & 공공 구매상담회 | 10. 30(수) - 11. 01(금)

특별 후원: POSCO E&C

후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ITP 인천테크노파크, KHIA (사)한국수소산업협회, INEP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경기안전기개공업협회, 미디어파트너: 에너지경제, INDUSTRY TODAY, 인경일보, 한기보, 에너지데일리, PK KOREA, 동아시아시어스, AVING Global Network KOREA

문의: (주)지엠이지 Tel. 02-565-0501 Email. greenenertec@gmeg.kr www.greenenertec.com

티메프 모기업 큐텐, 퇴직자 임금도 미정산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 퇴직 임직원 23명 임금·퇴직금 미정산 피해추정 약 10억원, 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도 드러나 큐익스프레스 등 타계열사 비슷한 처지...피해자 민사소송 청구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모회사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 23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임직원들이 퇴직후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 미사용 연차 등 임금 관련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 참여한 임직원의 피해 금액(미지급 임금액)은 약 9억8000만원이다.

큐텐테크놀로지는 직원들을 상대로 4

대보험에 미가입 상태에서 그간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직원들은 티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큐텐테크놀로지의 임금 지급이 힘들어지자, 퇴사를 결정하고 퇴직금, 미사용 연차 등 임금 관련 비용을 수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큐텐그룹 계



큐텐그룹 계열사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열사의 임금체불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메프를 비롯해 큐텐테크놀로지, 큐익스프레스 등 계열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티메프의 국민연금 상실가입자(퇴사자) 수는 265명이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각각 125명, 140명이 퇴사했다. 큐텐테크놀로지와 큐익스프레스코리아에

서는 각각 8명과 11명이 회사를 떠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에서 처리 중인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사건은 400여건에 달한다. 지난달 제기된 사건 중 14건은 조사가 완료됐다. 총 1억2522만원이 체불액으로 인정됐지만, 이중 10만2000원만 청산됐다.

서예은 기자 pr9028@ekn.kr

‘흑백요리사’ 인기에 쿡방 부활...유통가 반사이익 노린다

프레시지, 최현석 IP 브랜드 추가 출시 ‘수해 기대감’
너구리라면 활용 팟타이 큰 관심에 농심 레시피 공유
편의점 CU, 작년 한정판매 연세우유생크림빵 재출시



지난 8일 종영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전쟁’이 신드롬에 가까운 큰 인기를 끌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쿡방(요리 소재 예능방송)’의 부활 조짐에 식품 및 의식기업들도 반사이익을 챙기기에 분주하다.

쿡방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져 자사 기업들이 신규 IP(지적재산권) 브랜드 공개,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단종 제품의 재출시를 서두르며 ‘쿡방 밀물’에 맞춰 ‘사업 노젓기’에 나선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레시지는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최현석 셰프를 명 예고문으로 위촉한 데 이어, 최 셰프와 IP 유통 계약을 체결해 신규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초이닷 : 직원식(食)당’을 출시했다.

당초 프레시지는 2021년부터 최 셰프와 협업을 이어왔다. 이미 방송 출연 전부터 최 셰프와 협업한 IP 제품은 월 평균 판매량만 40만개 이상 기록할 만큼 인기 제품으로 꼽힌다. 대표 상품인 ‘한돈

한우 함박 스테이크’의 경우 지난 1~8월 50억 원 이상 판매될 정도다.

프레시지 관계자는 “당사에서도 최 셰프의 흑백요리사 출연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며 “특히, 흑백요리사에서 최 셰프가 상위권까지 생존하며 화제를 모으면서 더욱 수해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농심도 라면 대표제품 ‘너구리’로 흑백요리사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흑수저 셰프 가운데 ‘요리하는 또라이’로 출연한 윤남노 셰프가 농심 너구리 만든 팟타이를 선보이면서 해당 제품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이 제공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뉴엔AI’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심 너구리와 관련해 소셜 서비스(SNS) 키워드 검색량은 이달 1~7일 5534건으로 흑백요리사 편이점 편이 공개되기 전인 직전주(9월 24~30일) 2701건 대비 105% 가량 늘었다.

인기에 힘입어 지난 달 말 농심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흑백요리사’라는 패러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달 23일에는 직접 만든 너구리 팟타이 조리법을 공유하는 등 제품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프레시지가 최현석 셰프와 협업해 새롭게 출시한 가정간편식 브랜드 ‘초이닷·직원식(食)당’

농심 관계자는 “취향껏 새롭게 만들어 먹는 모디슈머라면 대표 제품인 너구리가 흑백요리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면서 “다만, 너구리를 활용한 셰프와의 협업, 관련 제품 출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흑백요리사 인기에 단종됐던 제품도 다시 돌아왔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의 ‘연세우유 마롱 생크림빵’이 주인공으로, 올해 초 녹화된 흑백요리사 편이점편 방영분에서 당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이 흑수저팀 나폴리맛피자(권성준 셰프)가 만든 디저트 ‘밤 티라미수’ 재료로 활용돼 큰 관심을 끈 덕분이다.

이 제품은 연세유업과 협업해 만드는 연세우유크림빵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추동시즌 동안 한정판매용으로 출시된 제품이었다. 다만, 최근 재출시를 결정하면서 CU는 자체 앱(APP) 포



지난 23일 농심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한 ‘너구리 팟타이’ 레시피 관련 사진.

켓CU를 통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해당 제품의 사전 예약을 받았다.

당초 마니아 시청층 위주였던 쿡방은 2010년대 ‘마스터셰프 코리아’, ‘한식대첩’, ‘냉장고를 부탁해’ 등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등장과 함께 시장 트렌드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후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식상하다는 비판이 뒤따르며 열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흑백요리사 인기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분(even, 고르게) 하계”, “나야들 기름” 등 방송 속 셰프들의 멘트들이 일종의 밈(meme, 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변질 만큼 화제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공개 목표로 ‘흑백요리사 시즌2’ 제작도 확정됐다. 쿡방 열풍 대열에 합류해 지난해 10월 추동시즌 동안 한정판매용으로 출시된 제품이었다. 다만, 최근 재출시를 결정하면서 CU는 자체 앱(APP) 포

삼성바이오 형제, 올해 누적매출 ‘동반 신기록’

삼바로직스 3분기 1조1871억, 누적 3조2909억 ‘최대’
삼바이피도도 누적 1조1403억 달성, 작년 매출액 추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립 이래 처음 3분기 누적 매출 3조원을 돌파했다. 자회사 삼바이피도도 처음 3분기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동반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1871억원, 영업이익이 338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6% 증가했다.

이는 분기기준 역대 최대 매출로, 이로써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도 3조 2909억원으로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 별도 기준 3분기 매출은 1조671억원으로 별도 기준으로도 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제4공

장의 매출 증가 및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확대에 따라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글로벌 상위 20대

계약사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028억원 규모의 대형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삼바이피도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에 18만㎡ 규모의 제5공장을 건설 중이며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자회사 삼바이피도 역시 올해 3분기 매출 3303억원, 영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 조감도

이익 679억원을 올리며 1~3분기 누적 매출 1조1403억원을 기록, 3분기만에 지난해 전체 매출(1조203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에피스의 3분기 매출 상승률을 전년 동기 대비 26%, 영업이익 상승률을 38% 로 크게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삼바이피도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가장 큰 성장요인으로 연구개발 성과 달성 시 파트너사로부터 수령하는 대가인 ‘마일스톤’을 꼽았다.

삼바이피도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과질환 치료

제아일리아바이오시밀러 ‘오푸비즈’의 미국 허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의 미국 및 유럽 허가 승인에 따라 각각 파트너사인 바이오젠과 산도스로부터 올해 상반기에만 총 2205억원 규모의 마일스톤 수익을 얻었다.

삼바이피도 관계자는 “13년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의 리더십이 괄목할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며 “선진 시장에서의 경영 노하우를 집중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바이피도 관계자는 “송도 제4공장의 성공적인 램프업(가동률 상승) 및 주요 고객 환원 환경 지속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로 연매출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철호 기자 kch0054@ekn.kr

와제의 신상품 롯데는 ‘대건 명가 돼지국밥’

부산명물 ‘돼지국밥’ 집에서 즐긴다

입점 첫달 만에 1억 매출...38시간 끓인 육수 인기

부산 명물 돼지국밥을 상품화한 ‘대건 명가 돼지국밥’ 간편식이 최근 온라인몰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4일 롯데에 따르면, 프런티어식품이 운영하는 ‘대건명가 돼지국밥’은 롯데에 신규 입점한 지 한달 만에 매출을 1억 원을 돌파하며 탑(TOP) 셀러에 등극했다. 대건명가 돼지국밥을 상품화한 ‘엄마가 보낸 국밥’은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쟁여 튀야 하는 국밥’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율이 급증했다.

대건명가 돼지국밥은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돼지국밥 맛집이다. 장엄자의 아들 이름을 본뜬 대건명가 돼지국밥은 2002년 부산 대진동에서 시작해 국내산 돼지 통사골 100% 우려낸 육수로 만든 돼지국밥, 순대국밥, 메밀 막국수 등을 판매해 유명세를 타며 연예인들까지 다녀가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했다.

롯데에서 판매중인 대건명가 ‘엄마가 보낸 국밥’은 제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과 품질은 기본 엄마의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물과 100% 국내산 통사골만으로 육수를 우려낸다.

승부수는 ‘블렌딩 육수’이다. 전통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1차, 2차에 거쳐 육수를 고아, 3차 혼합방식으로 매일 새로운 육수를 끓여낸다. 38시간 동안 끓인 육수를 섞어 만드는 것이다. 대건명가의 국밥은 총 61시간이 필요하다. 기름과 핏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세척해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는 19시간, 돼지 기름을 제거하고 뽀얀 육수를 얻기까지 필



롯데는 대건명가 돼지국밥 간편식

요한 38시간, 고기 육즙을 보존하기 위해 속성시키는 과정은 무려 4시간이 소요된다.

롯데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건명가 부산 돼지국밥(630g)은 1인분 기준으로 육수 500g, 국밥고기 130g, 양념장과 소금을 각각 하나씩 구성되어 개별 포장했다. 육수는 정제수 60%, 국내산 돼지 사골 40% 비율이다.

실제 상품을 구매해 맛보니 엄마가 보낸 국밥은 진한 사골의 맛이 느껴져 좋았다. 파를 송송 썰어놓고 국수사리도 같이 넣어 먹어도 든든한 한끼가 될 것 같은 양이었다. 다만 주된 상품 중 일부 재료는 도착하지 않아 아쉬웠다.

대건명가의 국밥 조리법은 매우 간단하다. 상온에서 육수와 고기의 해동을 거쳐 가정용 전자레인지(700W 기준)으로 4분 30초 동안 조리하면, 뜨끈한 돼지국밥 요리를 집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다. 대건명가 국밥 3종세트(1개당 8200원) 가격은 2만4600원이다.

서예은 기자 pr9028@ekn.kr

타인 도움 없이...하반신마비 장애인에게 스스로 걸어와 입힌다 카이스트, ‘앞으로 착용’ 웨어러블 로봇 공개

공경철 교수팀 ‘워크 온 슈트 F1’
27일 장애극복 사이보그올림픽 출전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이 사람의 도움 없이 착용(wearable)하고 보행을 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 새 모델이 나왔다.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

카이스트(KAIST)는 24일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하반신 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 새 모델인 ‘워크온슈트 F1(WalkON Suit F1)’을 개발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 교수팀은 오는 27일 스위스에서 4년마다 열리는 장애극복 사이보그올림픽 ‘제3회 사이베슬론(Cybaathlon)’에 워크온슈트 F1을 출전시켜 해외 경쟁모델과 경연을 벌일 예정이다.

공경철 교수팀은 지난 2020년 사이베슬론의 웨어러블 로봇 종목에 ‘워크온슈트’ 모델로 참가해 금메달을 따냈다. 4년 만에 새 모델로 최고 입상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워크온슈트는 공 교수팀이 2015년부터 연구해 온 하반신마비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2016년 워크온슈트 1 첫 발표에 이어 2020년 보행속도 최대 시속 3.2km에 좁은 통로, 문, 계단 등 장애물까지 통과하는 기능을 갖춘 워크온 슈트4로 발전했다.

그럼에도 장애인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원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에 선보인 워크온슈트 F1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한 하반신마비 중증도가 가장 높은 ASIA-A(완전마비) 레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이다.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인 김승환 연구원(왼쪽)이 24일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박정수 연구원(오른쪽)과 함께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타인의 도움 없이 로봇을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후면착용 방식이 아닌 전면착용 방식을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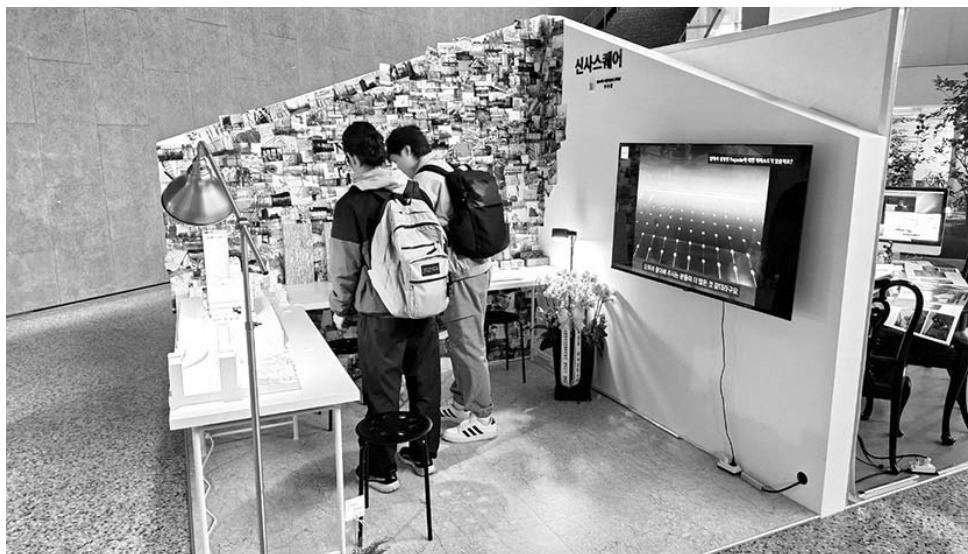
또한, 로봇을 착용하기 전에는 마치 휴머노이드처럼 스스로 걸어와 착용자에게 다가오고, 무게중심을 능동 제어하는 기능을 적용해 장애인이 로봇을 잘못 밀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균형유지 기능도 갖추고 있다.

직접 상태에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팡이 없이도 일부 걸음이 가능한 균형제어 성능도 향상시켰다.

공경철 교수는 “워크온슈트는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의 결정체”라며 “워크온슈트에서 파생된 수많은 부품, 제어, 모듈 기술들이 웨어러블 로봇 산업 전체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제3회 사이베슬론에는 카이스트 박정수 연구원(주장), 완전마비 장애인인 김승환 연구원(선수)이 팀을 이뤄 엔젤로보틱스 선형연구소(플래닛대전) 내에 설치된 경기시설에서 온라인으로 참가한다.

김철호 기자



24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 행사장에서 관람객들이 '신사스퀘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건축문화제 '집들이 형식' 이색 전시 눈길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 29일까지 강연·투어 준비하고 이벤트도 기획 불거리·체험행사 많아 관람객 북적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 행사장 내 '모아타운 프로젝트' 수상작들이 전시돼 있다.

"수준 높은 전시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상상해볼 수 있어 좋다."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 만족스럽다."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옆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에 참여한 관람객들의 말이다. 24일 찾은 행사장은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문한 관람객들로 북적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집(集) : 사람은 집(集)을 위해 집(家)을 만든다'였다. 제42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선정된 'CLOUD'를 비롯해 최우수상 '강남구 웰에이징 센터', '오동숲속도서관' 등의 작품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수상작 9개를 하나의 '집'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실제 내부에 들어가보면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 집들이를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넓은 거실을 지나가면 방 안에서 수상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식이다.

'건축가의 테이블'에 앉아 사진을 찍는 이들도 많았다. 시는 건축사 사무실에 있을 것 같은 테이블을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제공했다.

대학과 협력을 통해 제작한 '모아타운 프로젝트' 수상작들도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모형을 생동감 있게 재현했다. 주요 작품들 옆에는 관련 설명을 잘 적어놨을 뿐 아니라 QR코드를 통해 더 궁금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직장인 A씨는 "건축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다양한 불거리가 마련돼 있어 놀랐다"며 "이벤트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

체험할 거리도 풍성한 것 같다"고 했다.

행사 진행 관계자는 '건축가가 들려주는 건축 이야기'나 '수상작 투어' 등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귀띔했다. 각 건축물이 만들어진 에피소드를 직접 듣거나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건축 요소들을 자세히 풀어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건축문화제'는 2009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다. 시내 우수 건축물을 발굴·시상하고 건축문화 저변을 확대한다는 게 목적이다. 시는 건축인과 시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문화제 아이템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올해는 2월부터 문화제 총감독에 김호민 건축가를 위촉하는 등 행사준비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

'집들이' 형식의 이색 전시회라는 입소문을 타며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비결이다. 지난 2일 개막 이후 21일까지 20여일간 2만명이 방문했다. 패널 형식 기존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행사를 준비한 게 주요했다. 이는 시의 분석이다.

현장에 있는 진행요원은 "주말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도 많이 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며 "60·70대가 전시물에 깊은 관심을 보이거나, 어린이들이 체험 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스마트건설, 시공 넘어 가치사슬 고려해야

건설연, 건설혁신 세미나 "건설산업 생존 위해 기술혁신 필수"

건설환경 변화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생산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순 시공기술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건설 가치사슬 전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연)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열린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기반 건설혁신'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건설산업은 생산성 혁신 지연, 첨단 기술 활용 부족, 혁신적 인프라 공급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산업에 고착된 부정, 불신, 부실을 제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희대 건설연 부연구위원은 "건설 기술인력, 기능인력 고령화, 숙련근로자 감소 등 현장 작업자 구조 변화로 현장에서는 작업생산성 하락, 품질편차 확대, 근로자 확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의 혁신이 건설산업의 현안 해소와 산업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 건설산업 혁신정책에 대해선 기술 확보를 우선



박희대 건설연 부연구위원이 서울 강남구 열린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기반 건설혁신' 세미나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시하는 반면 활용 기반 마련에는 소홀하고 있는 점, 파편화된 건설사업 가치 사슬 전반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한 점, 디지털화 및 자동화 지원을 위한 표준화 전략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또 소수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건설정보모델링(BIM), 디지털 트윈, 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화 단계에 접어들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건설기업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이 저조하다고 건설연은 분석했다. 스마트 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전환 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설연에 따르면 주요 기술 미적용 기업 평균이 67%에 이른다.

박 부연구위원은 "건설 생산시스템 혁신 방향은 설계 시공기술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건설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설사업 참여주체의 디지털 기반 업무수행체계 및 상호 연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기반 정비, 실증 데이터 축적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각 참여주체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 내 스마트건설의 조속한 안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광표 건설연 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 및 복수부처의 법령·제도

로 얽혀 있는 경직적이고 분절화된 산업체계의 혁신이 필수적이다"이라며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마트 건설의 도입·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각종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확장적 인식의 부재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관리-확산을 연계한 선순환 체계 구축 미비 △기존 산업체계 기반 스마트 건설사업의 효율적 발주 및 운영 한계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다.

건설연은 스마트건설 정착을 위한 시장참여자별 역할로 '정부의 산업체계 혁신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발주자의 합리적 사업추진 및 실행방안 마련', '산업계의 진일보한 생산시스템 도입을 통한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Online K-Climate & Energy Festival 2024

2024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

: 에너지 유니버스 대탐험을 떠나요!

참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 사무국

2024 11.18~11.29
energyshow.co.kr
문의 | 02) 6749-3149

건설 불황 직격탄...시멘트 내수 출하 13%↓

올해 출하량 3222만t...전년비 12.9%↓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요가 감소하면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시멘트 출하량이 지난해에 비해 13%나 줄어 들었다. 업계에선 연간 출하량이 IMF 외환위기때보다도 더 줄어 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24일 한국시멘트협회가 발표한 '2024년 시멘트 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시멘트 출하(내수)는 3222만t으로 전년 동기(3698만t) 대비 476만t(12.9%)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내수 총출하량은 4400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연간 출하량은 지난해(5024만t) 대비 12.4% 줄어 들게 된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협회 측은 밝혔다.

이같은 시멘트 내수 감소는 건설경기 침체 속 주요 건설 관련 선행지표가 하락한 탓이다. 올해 1~8월 건설수주액은 약 109조원으로 정부 경기 부양 정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과거 수준으로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극성수기에 해당하는 3분기에 판매량이 두 자릿수 가깝게 줄어드면서 국내 시멘트업계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생산량 대부분을 내수판매에 의존하는 시멘트업계는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로 일부 생산설비에 대한 가동 중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내년도 수요가 올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내년도 국내 수요가 4200만t 이하로 떨어질 경우 2년 만에 내수 출하량이 2014년 출하량 수준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급격한 출하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기요금 인상 현실화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및 탄소중립 등 환경부문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시멘트업계는 초긴축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간 1억t이 넘는 일본의 시멘트 출하가 이제는 4000만t 이하로 추락했듯이 국내 시멘트 출하도 4000만t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생존을 위한 가나 긴 터널을 지나야 할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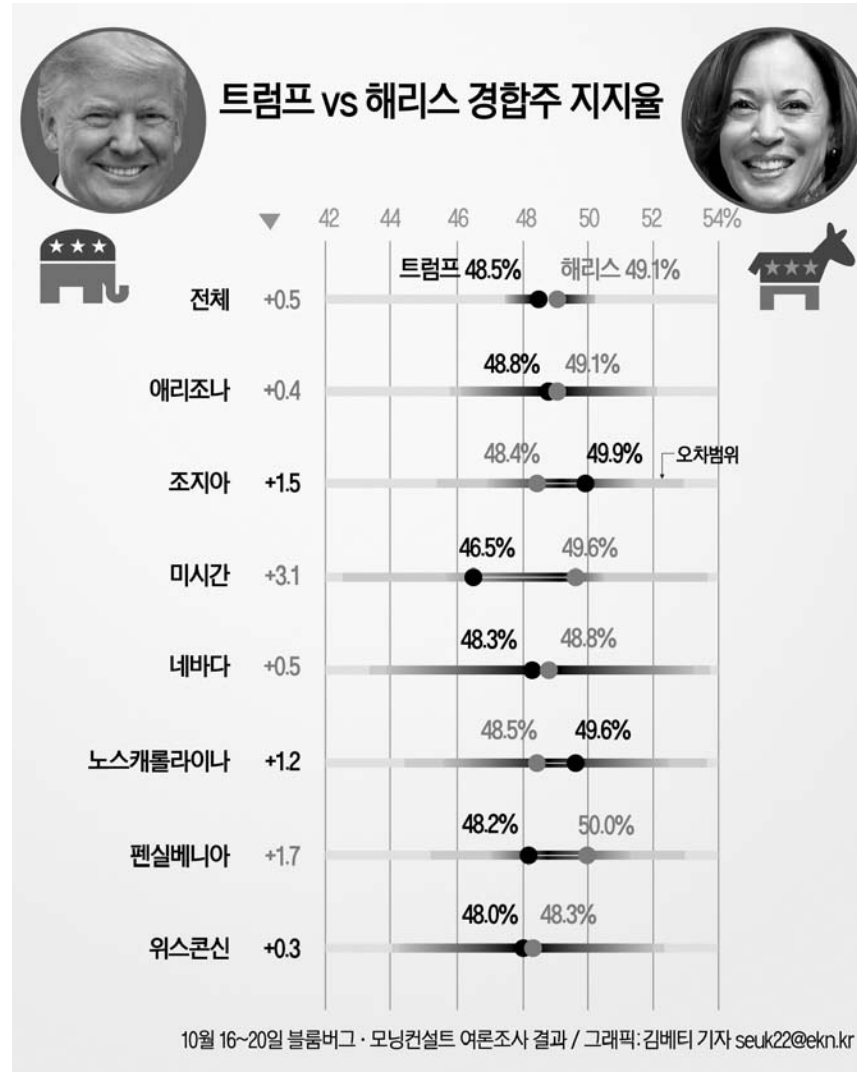
이현주 기자

‘경합주 지지율’ 초접전... 해리스 49.1% vs 트럼프 48.5%

美 대선, 블룸버그·모닝컨설팅 16일~20일까지 5308명 조사
해리스, 애리조나·미시간·네바다·펜실베이니아 4곳서 우세
트럼프,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서 오차내 우위

미국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7개 경합주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차범위 이내지만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 내용대로 경합주를 차지할 경우 대선에서도 이기게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모닝컨설팅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경합주 7곳에서 5308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합주 7곳 단위(오차범위 ±1% 포인트(p))로 해리스 부통령은 49.1%의 지지율을 기록, 48.5%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0.5%포인트 앞섰다.
각 경합주별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0.4%p 우위·오차범위 ±3%p) △미시간(+3.1%p·오차범위 ±4%p) △네바다(+0.5%p·오차범위 ±5%p) △펜실베이니아(+1.7%p·오차범위 ±3%p)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 우위에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1.5%p·오차범위 ±3%p) △노스캐롤라이나(+1.2%p·오차범위 ±4%p) △위스콘신(+0.3%p·오차범위 ±4%p)에서 해리스 부통령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 부통령이 4승 3패로 앞서고 있지만 경합주 7곳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승부의 향방을 예상하기엔 여전히 어려운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체의 5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 대응할 것



으로 봤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는 45%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당시에 비해선 좋은 결과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깰아 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금리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47%)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5%p 우위에 있었으며 기금값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50%)은 9%p의 격차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다.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8%로 해리스 부통령(46%)을 소폭 앞질렀다.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우위를 보였던 분야에서도 격차가 좁혀졌다. 세금 관련 문제는 두 후보가 46% 지지를 받았는데 지난달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1%p 앞서고 있었다.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48%로 직전과 동일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조사 대비 1%p 오른 43%로 나타났다.
의료비용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직전(52%) 대비 1%p 하락한

51%를 기록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41%에서 1%p 오른 42%의 지지를 받았다.
또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도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소폭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권자 50%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지난달 조사와 동일하게 나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6%로 전달(45%) 대비 1%p 올랐다.
한편, 미국 선거분석 사이트 270투인에 따르면 현재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9명의 선거인단을 사실상 확보한 상태로 분석됐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텃밭인 주(州)의 경우 각 당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가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은 경합주 7곳의 선견인단을 누가 차지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처럼 해리스 부통령이 애리조나(11명), 미시간(15명), 네바다(6명), 펜실베이니아(19명)에서 모두 승리하면 과반(270명)이 넘는 2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중 기술전쟁, 해리스·트럼프 상관없이 격화될 것”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미국과 중국 간 기술 전쟁은 지금보다 한층 가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당국자, 업계 전문가, 양측 캠프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중국산 반도체나 커넥티드카 등의 미국 유입과 첨단 반도체와 기술 등의 중국 유출을 막으려는 미 정부의 정책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리스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트럼프는 중국의 기술 발전에 맞서기 위한 조치로 관세 인상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 안보 분야 당국자였던

업계 전문가·양측 캠프 관계자
“美 대선 결과와는 관계없이 커넥티드카 등 미국 유입과 첨단반도체 중 유출 막으려는 미국 정부 정책 더 심해질 것”

피터 해럴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초점을 맞춘 미·중 기술 냉전의 새로운 전선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커넥티드카가 미국 도로에서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올해 봄에는 송풍 펌프를 중국 기업이 때리지 않을 경우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

이 통과됐다.
해럴은 “중국 기업이 미국 내 기기에 접근해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큰 우려가 있다”면서 “커넥티드카나 틱톡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기술 전쟁에 대한 접근 방식은 트럼프보다 더 목표가 분명하고 조율된 것이 될 것이라고 양측이 가까운 사람들은 전했다.
예를 들어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기술이 중국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가능성이 높을 반면 트럼프는 더 빠르게 움직이며, 미 정부 조치에 반발하는 동맹국들도 제재하려는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 상무부에서 일한 나

작 니카흐타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제재 대상 기업에 누가 협력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재기업 수를 대폭 늘릴 것이며 미국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도 많이 제한될 것으로 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칩 수입뿐만 아니라 해당 칩이 포함된 특정 제품에 수입제한을 걸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상무부에서 근무한 빌 레인저는 “해리스가 ‘메스’를 사용하는 곳에 트럼프는 ‘해머’를 쓸 가능성이 높다”면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포괄적이며, 관세 인상 공약에서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美 ‘푸틴 돈줄’ 옥죄기...러 광물 제재 추진

미국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광물에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주요 7개국(G7)에 러시아산 팔라듐과 티타늄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미당국자들은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G7 재무 차관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을 훌쩍 넘어가는 시점에서 러시아 경제를 추가로 옥죄려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다만 팔라듐과 티타늄이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며, 그간 서방 국가들이 원자재 시장 혼란과 공급망 붕괴 등을 우려해왔다는 점에서 실제로 제재가 이

뤄질지는 미지수다. 팔라듐은 자동차 배기 가스 감축 촉매제 등으로 쓰이며, 러시아가 전세계 공급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다.
티타늄도 항공기, 의료용 임플란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러시아 기업 노르니켈이 전세계 팔라듐 생산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 항공 부문에서 쓰이는 티타늄도 러시아 업체가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 G7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이번 제재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팔라듐을 제재 목록에 올렸으나 산업 전반에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안에 대해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THE NEIGHBORS HONORS CLUB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당신의 선택
지금 굿네이버스와 함께해 주세요.

더네이버스아너스클럽

‘더네이버스아너스클럽’은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위해 1억 원 이상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돕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나눔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문의 02·6424·1782 / 1826
홈페이지 goodneighbors.kr / 이메일 gnmcc@gni.kr

세종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위해 박람회해야”

외부 수요 파급효과 상당...최민호 시장, 주민 의견 청취위한 간담회 개최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소상공인연합회 및 세종상가해결민간추진단 등 소상공인 관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세종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조지원중심가로 및 중촌·한솔·아름·나성동 상인회장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높은 임대료와 이자 부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람회 개최로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 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박람회에 대한 기대가 크며 박람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평소 조용한 세종시에서 축제 기간 중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매우 즐겁다며 다른 행사와 달리 박람회는 외



지난 23일 최민호 세종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및 세종상가해결민간추진단 등 간담회를 열고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부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도심 상권 무료셔틀 운영 및 읍면 지역 관광 연계 등을 통해 박람회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박람회장 인근에 국한되지 않고 읍면동 지역까지 골고루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 시장은 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각계 각층의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지난 21일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24일 경제계 및 종교계, 25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 31일까지 연장

1만7700명에 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많은 농어민 혜택 받기를”

경기도가 24일 농어민기회소득 신청 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올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인증) 1만 7700여 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청년, 귀농어, 환경 농어민을 위해 시군별로 달랐던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 시군은 10개 시군(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이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으로 경영주뿐만 아니라 구성원(가족 등)도 해



농어민기회소득 신청 홍보 포스터

당되며 특히 청년농어민은 50세 미만 모든 농어민이, 귀농어민은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 농어민이 각각 대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민기에 신청 시기를 놓친 농업인 많아서 신청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송인호 기자

경기도, 임신 중 공무원에 주 1일 휴무 보장

업무대행자 인센티브도 강화

경기도가 24일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유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유원근무제’에 대해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마련됐으며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유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 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통상 임신기간을 40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주 1일 휴무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 공무원직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 4백여 명의 임신 중인 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 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를 두 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송인호 기자

인천시,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 본격화

송현·인현동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마무리 2029년 완공 목표...동인천역, 복합지구 개발로 재도약 노력

인천시는 24일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완료돼 동구 송현동과 중구 인현동 일원 9만 3483㎡의 원도심이 본격 개발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인천역 주변은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 시기에 인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번성했으나 1990년대 이후 소비패턴 변화와 전통시장의 쇠퇴, 도시 중심축의 이동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현재 건축물의 80% 이상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심과 원도심 간 불균형이 인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평가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는 동인천역 주변 지역의 전면 개발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인천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주민 반대 등으로 17년간 지연됐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재개발 추진지구 해제 절차도 지난달 마무리 지으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시는 동인천역 일대를 복합지구로 개발할 계획으로 이 지역은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지구로 재탄생해 원도심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2026년 중·동구 통합에 맞춰 그동안 경인전철로 인해 단절됐던 남·북

광장을 연결하고 상부에 입체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되며 사업비 5120억 원을 투입해 1279가구, 2531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내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6년 공사에 착공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동인천역 일대 개발은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사업”이라며 “동인천역을 거점으로 원도심을 부흥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송인호 기자 sin31@ekn.kr

경기관광공사, RTO 최초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가 24일 국내 ‘RTO군(지방관광공사군)’에서 최초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활동 실천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역 상생 등 경영전략 실현 “공사 ESG 경영 강화하는 계기될 것”

공사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광역관광공사로서는 최초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공사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성과를 담고 있으며 ESG 경영을 핵심으로 환경 보호, 지역사회와의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환경(E) 영역에서는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운영을 통해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관리, 환경영향크리닝 강화 등 탄소저감활동에 대한 성과를, △사회(S) 영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ISO45001)을 기반

으로 안전보건 활동과 협력사 ESG 행동규범 제정, 동방성장 지원활동 및 사회공헌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배구조(G) 영역에서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윤리경영 및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전략과 실천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사가 지난해부터 상반기까지 추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에 따라 작성했으며 독립 인증기관의 제3자 검증 등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고 보고서 전문은 공사 누리집의 공지사항과 열린경영-ESG 경영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기관광공사 경영보고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업을 위한 공사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 한다”며 “이번 보고서 발간은 공사의 ESG 경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송인호 기자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 독점 사업자 운영이 후진성 불렀나?

지역매체 “27년 동안 단일 사업자 신기술 도입 더디고 개선 어려워” 업계 “전국호환시스템 구축” 시민 편의 불편 지적에 반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3월 29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 일각에서 최근 부산시의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새 사업자 공모 이슈를 두고 “독점 구조”라며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로 일부 사실이 왜곡된 것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최근 부산지역 한 유력매체는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은 구축 이후 27년 넘게 단일 사업자 체제로 운영되다보니 신기술 도입이 더디고,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전국호환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어떤 교통카드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지는 선택은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

에서도 티머니 교통카드를 언제든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티머니 교통카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교통카드 사용 거래 내역 정산은 부산해 정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단일 사업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산사업자는 부산하나로카드(주)와 ㈜마이비 등 4개 회사로 구성된 하나로그룹과 티머니양대 회사”라며 “이들은 각자 신기술 개발이나 서비스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부산은 여전히 전통적인 요금 징수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 시민 편의가 뒤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발했다. 부산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하나로그룹은 국내 최초로 경기도와 창원시 버스에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을 적용했고,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은 장기간 마이비에 의해 운영되며 초창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런 탓에 모바일티 대안화와 모바일 핀테크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마이비는 “낙후성때문에 모바일 교통카드 적용이 늦어진 것으로 지적된 동백택스의 경우에도 마이비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상욱 기자 lee6654@ekn.kr

울산시, 12월 2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울산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2월 21일 첫차부터 시행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중구 센트리지에서 동구 방향의 118번 노선을 보완하고, 동구 아산로 운행 노선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북구 주요 거점(달천, 매곡, 모하)에서 도심을 거쳐 울산대학교 방면 운행 노선 3개도 보완한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183개 노선 중 83개 노선을 존치했다. 반면, 25개 노선을 통합하고 75개 노선을 변경했다. 이는 통합된 노선보완을 위해 22개 노선을 새롭게 신설했다. 신설 노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순환노선’이다.

이는 태화강의 교량 6개를 경우하면 서, 중구와 남구 도심 간 연계와 버스 간 환승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총 3개 노선

[순환11(12)번, 순환21(22)번, 순환31(32)번]이 운행한다.

외곽에서 도심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한 직행 좌석 노선도 확대한다. 동구 출발 3개 노선, 북구 출발 3개 노선, 울주군 출발 1개 등 총 7개 노선이 신설된다.

울산시는 신속성 확보를 위해 동일 구간 운행 시내버스 대비 정류소 수를 30~50% 정도로 감축하고, 승차감 제고를 위해 고급형 좌석 차량을 투입한다.

울산=이상욱 기자 lee6654@ekn.kr

삼성전자 “파리서 오닉스 통해 최상급 영화 시청”

〈시네마 LED스크린〉

새로 개관한 프랑스 영화관 파테팔리스 극장 6개 상영관에 가로 10m 규모 4K 해상도 오닉스 4개 스크린 등 설치 기존 대비 약 6배 이상 밝아 실감나는 HDR 영상 구현 유럽 명품 디올·루이 비통 등 지속적 협업, 디지털화 선도



프랑스 파리 소재 영화관 ‘파테 팔리스’에 설치된 삼성전자 시네마 LED ‘오닉스’로 영사한 현장.

삼성전자가 유럽 대표 극장 체인 파테 시네마가 새롭게 개관한 프랑스 파리의 영화관 ‘파테 팔리스’에 시네마 LED ‘오닉스(Onyx)’와 사이니지 제품을 대거 설치했다.

삼성전자는 시네마 LED 도입을 통해 최상급 영화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파테 팔리스 극장 총 7개 상영관 중 6개관에 가로 10m 규모의 4K 해상도 오닉스 4개 스크린, 가로 5m 규모의 2K 해상도 오닉스 2개 스크린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파테 팔리스 리노베이션은 파리 퐁피두 센터의 공동 건축가이자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유명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맡아 150여년의 역사가 남아 있는 오페라 극장의 정면과 돔을 복원함과 동시에 내부는 파테 그룹이 표방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화관’에 걸맞게 작업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시네마 LED 스크린 ‘오닉스’는 영사 방

식인 빔 프로젝터와 달리 스크린에서 직접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균일한 화면 표현과 뛰어난 색 재현력 등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프로젝터 방식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화면 왜곡이 없다. 영사기가 아닌 영화스크린으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영화협회(DCI, Digital Cinema Initiatives)가 화질·음질·콘텐츠 보안 기능 등에 대해 정밀한 디지털 시네마 표준 규격 인증을 받았다.

오닉스는 HDR(High Dynamic Range) 화질을 지원하고 자발광 LED 디스플레이로 압도적인 명암비의 퓨어 블랙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프로젝터 타입 대비 약 6배 이상 밝은 최대 300니트의 고휘도를 지원해 실감나는 HDR 영상 구현이 가능하다. 3D 안경을 착용

하면 입체감 있는 3D 시청 경험도 제공한다.

파테 팔리스 극장 입구 로비에는 가로 9.6m, 세로 5.4m 규모의 8K 초고해상도(7,680×4,320) LED 디스플레이 ‘더 월(모텔명 IWC)’을 설치했다.

8K 화질이 선사하는 압도적인 몰입감은 극장을 찾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이크로 AI 프로세서는 콘텐츠를 즉각적으로 분석하고 저화질 영상도 최대 8K까지 업스케일링해 선명한 화질로 제공한다.

또한 음료△팝콘 무인 판매소 등 부대 시설에는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를 설치해 영화시간표·영화트레일러·메뉴 등의 정보를 보다 선명하게 제공한다.

매노 텐 베르그 삼성 전자 프랑스 법인 부사장은 “영화뿐만 아니라 역사와 예술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극장인 프랑스 파테 팔리스에서 오닉스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에게 최상급 영화 시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시네마 LED 극장·버추얼 프로덕션 등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제작·소비 방식의 변화에 발맞춰 독보적 기술력의 LED 사이니지로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 영화 및 콘텐츠 제작사 파테 그룹 산하의 영화관인 파테 뷰그레넬과 파테 벨코트 인 리옹에 오닉스를 공급한 바 있으며, 이번 파테 팔리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로 더욱 공고해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시네마 LED 설치 등 프리미엄 극장 조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파테 그룹과의 파트너십 외에도 유럽 명품 브랜드 디올·루이 비통, 리모와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시·사무 공간에 다양한 사이니지 제품을 설치하는 등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주요 브랜드 대표 공간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박규민 기자 kevinpark@ekn.kr

유상임 장관, 내달 통신3사 수장과 첫 만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단통법 폐지 등 업계 주요 현안 논의 전망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다음달 첫 회동을 갖는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다음달 중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CEO와 상견례를 가진다.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달 13일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견례는 유 장관이 지난 8월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선 가계통신비 인하방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통합이동통신(LTE) 사이의 요금 역전 현상에 대한 개선책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3사가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인공지능(AI)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움직임에 대한 대응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로구 벙커스호텔에서 열린 기술산업화 지원 전문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I 주요 3국(G3)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통신 3사의 적극 투자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신 3사 대표들은 지난 3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속상견례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전환지원금 정책을 비롯해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기아·전력공사 미래 전력생태계 구축 ‘맞손’

PBV 모델 개발 및 진동화 협력... 업무 효율 ↑ ‘FMS’ 솔루션 개발 협력

기아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PBV 활용을 기반으로 한 미래 전동화·전력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기아는 지난 23일 서울 압구정동에 소재한 브랜드 체험관인 Kia 360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기아 PBV 활용 미래 전동화·전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원정 기아 국내 사업본부장(부사장), 송복구 현대차 그룹 GSO EV 혁신전략사업부 전무, 인주호 한국전력공사 안전·영업매전 부사장, 이경운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배전, 영업 등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PBV 모델 개발 및 진동화를 협력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량관계 시스템(FMS)’ 솔루션 개발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아는 2025년부터 출시되는 PV5를 시작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차량 운영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현장의 니즈도 적극적으로 파악해 반영할 예정이다. 또 자동 결제 충전(PnC), 양방향 충전(V2G) 등 미래 전기차 충전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협력해



23일 서울 압구정동 Kia 360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기아 PBV 활용 미래 전동화·전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이준호 한국전력공사 이준호 안전·영업매전 부사장과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전기차 시장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이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돕고 전기차 생태계 성장을 가속시킬 것”이라며 “기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최적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아는 2025년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첫 PBV 모델을 출시한 뒤, 중형에서 대형까지 아우르는 PBV 라인업을 갖추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특화 솔루션 패키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GM, 미래모빌리티엑스포 참가... “미래 방향성 제시할 것”

‘제품 쇼케이스 존’ 마련 핵심기술·최신 모델 선보여 ‘헤리티지존’서 120년 역사 미래모빌리티 기술 소개 ‘커리어존’ 학생들에 멘토링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에 마련된 제너럴 모터스(GM) 부스 전경.

제너럴 모터스(GM)의 한국연구개발법인(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은 오는 2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핵심 기술과 최신 모델을 선보이며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한국연구개발법인 사장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엑스포인 DIFA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GM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미래 자동차 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GM의 헤리티지를 선보이고 커리어 컨설팅까지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젊은 인재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며 “GM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팀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년 연속 DIFA에 참가한 GM은 이번 DIFA 2024에서 GM의 미래 성장전략을 이끌고 있는 한국연구개발법인을 통해 참가, 자사의 최신 제품 및 기술력을 선보이며 “제품 쇼케이스 존”과 GM의 120년 역사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하는 ‘헤리티지 존 및 크루즈 존’, 학생 방문객을 위한 ‘커리어 컨설팅 존’으로 구성

된 부스를 마련한다.

먼저 ‘제품 쇼케이스 존’에서는 GM의 다양한 모델이 전시돼 내연기관차부터 전기차에 이르는 GM의 뛰어난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쉐보레 브랜드를 대표하는 슈퍼카 ‘콜벳’ 8세대 모델이 국내 최초로 전시되며, 캐딜락의 첫 순수 전기 SUV인 ‘리릭’ 등 다양한 고성능 모델이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 예정이다.

‘헤리티지 존 및 크루즈 존’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해 온 GM의 120년 혁신의 역사와 함께, 무인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GM의 자회사 크루즈 오토메이션과 자율주행 기술인 슈퍼 크루즈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GM의 차세대 기술을 설명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커리어 컨설팅 존’은 부스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GM 임직원들이 직접 엔지니어링 지식과 경험을 통해 멘토링을 진행하는 공간이다.

이현우 기자 icw@ekn.kr

아워홈, 업계 첫 ‘폐식용유 순환자원 인정’ 획득 야놀자, 내년 다보스포럼 간다

식자재 및 푸드 서비스 기업 아워홈은 충북 음성공장이 국내 식품제조업 최초로 ‘폐식용유 순환자원 인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순환자원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하거나 사용되는 자원으로 환경부가 환경성과 경제성, 기술성 등에서 높은 재활용 가치를 인정한 물질과 물건을 의미한다.

순환자원 인정을 받기 위해선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기술검토·서류심사·현장심사 등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인정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로부터 제외된다.

아워홈은 음성공장 내 육가공 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수집·



서울 강서구 마곡 소재 아워홈 본사 전경.

관리·재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 원주지방환경청의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 인정을 획득했다. 해당 음성공장은 연면적 3만 7485㎡, 5층 규모로 튀김유·유탕유·카츠리 등 육가공 제품과 김치류를 생산한다. 인정 기간은 오는 2027년 10월까지 3년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혁신자 커뮤니티, 유니콘 자격 야놀자가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의 혁신자 커뮤니티에 유니콘기업으로 가입했다.

24일 야놀자에 따르면, WEF 혁신자 커뮤니티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1조 원(10억 달러) 이상 가치의 글로벌 혁신스타트업으로 구성된다. 야놀자는 이번 선정에 힘입어 내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유니콘 멤버로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자 커뮤니티가 제시하는 10개의 주요 아젠다 중 ‘도식 개발 분야’에 참여해 자사



여행산업 특화버티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 세계 여행·관광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야놀자는 향후 WEF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 시장에서 성장의 여력이 인공지능 기반 혁신 솔루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는 “앞으로도 전 세계 기업들과 협력하여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여행 산업의 변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네덜란드·튀르키예 등 4개 추가

삼성전자는 ‘갤럭시 AI’의 지원 언어를 20개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16개 언어에 네덜란드어·루마니아어·스웨덴어·튀르키예어 등 4개 언어가 새롭게 추가된다.

갤럭시 AI 지원 제품 사용자는 10월 말부터 설정 앱에서 새롭게 지원되는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 AI는 20개 언어를 구사하는 혁신적인 기능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소통과 창의적 활동을 지원한다.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언어 기능은 △통화 중 음성을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실시간 통역’ △대면 대화 내용을 즉시 번역해 분할·듀얼 화면에 텍스트로 표시하는 ‘통역’ △효율적인 채팅을 돕는 ‘채팅 어시스트’ △노트 내용의 번역과 정리를 지원하는 ‘노트 어시스트’ △음



갤럭시 AI 지원 언어가 20개로 늘어난다.

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바로 번역하는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웹페이지를 번역하는 ‘브라우징 어시스트’다. 삼성전자는 언어를 넘어 문화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갖춘 고도화된 ‘갤럭시 AI’를 위해 세계 각지의 R&D 센터에서 언어 모델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갤럭시 AI’ 언어 모델은 언어의 특성과 문법에 대한 정량 평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검증하는 정성 평가 등을 거쳐 공개된다. 박규민 기자

비난을 각오한 석탄을 위한 변론

EE칼럼
Energy&Environment

박주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영국이 마침내 142년 석탄 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지난 9월 30일 마지막 석탄 발전소인 '맷클리프 온 소어 발전소'를 중단함으로써 영국은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없앤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석탄 발전을 시작한 국가였기에 이번 석탄발전소 완전 폐쇄는 문명사적 의의가 크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원지로서 지난 200년 넘는 기간 동안 석탄과 함께 성장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1882년 세계 최초로 건설한 홀론 바이어트 석탄발전소는 런던의 거리를 밝혔다.

그 후부터 20세기 기간 내내 석탄은 영국 발전의 기둥이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석탄의 발전비중은 80%에 달할 정도였다. 그 후 북해 천연가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석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최근까지 중심 전원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을 피할 수 없었다. 기후변화가 전 인류의 공통 의제가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분명한 목표가 되었다. 영국은 2008

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 목표를 수립하고, 2013년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2025년을 목표로 석탄발전 중단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단 12년 만에 석탄발전 비중을 39%에서 0%로 낮추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39.7%로 우연히도 영국의 2012년 수준과 거의 같다. 수치만 단순 비교하면, 우리도 영국이 해낸 것처럼 12년 만에 석탄발전 퇴출을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다보니 일부 환경단체는 이번 영국의 사례를 앞세우며, 국내 석탄발전소 육취기에 더한층 나서고 있다. 이미 탄소중립 2050 계획에 따라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2038년 석탄발전 비중을 10.3%까지 대폭 낮추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영국의 탈석탄 과정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영국의 석탄발전소는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폐쇄된 석탄발전소도 1967년에 건설되어 약 55년 만에 퇴출되었다. 사실 영국에서 석탄은 마켓 데저 수상의 탄광노조 개혁 이후 줄곧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전력계통에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들만 대부분 존재하던 상황이었다. 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마당에 북해 천연가스를 상대적으로 싸게 쓸 수 있는 영국에서 굳이 석탄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

의 최근 석탄발전 중단 정책은 쇠퇴해 가던 석탄에 마지막 췌기짚을 박은 정도지 추세를 뒤바꾼 혁명적 정책은 결코 아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대개 2000년 이후 준공된 비교적 신규 발전소에 가깝다. 특히 2011년 전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허가했던 민간석탄발전소는 2020년 전후로 가동을 시작한 최신발전소다. 이들 발전소는 경제성 높은 소위 잔여발전량을 아직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 사례와는 완전히 다르다.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분별없는 석탄발전소 폐기는 지양해야 한다. 무리한 탈석탄은 제 발등 찍기가 될 수도 있다. 국내 석탄발전소는 이미 석탄발전 상한제, 송전제약, 지역별 요금 차등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스스로 문을 닫을 판이다. 에너지효율 높은 최신 석탄발전소가 자의든 타의든 조기 중단되는 것은 절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정이 전혀 다른 해외 사례에 기대어, 맹목한 최신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과거 수 백 년에 걸쳐 진행된 에너지전환을 나타내는 장기 에너지 대체 곡선을 보면, 특정 에너지의 시장점유율이 1%에서 10%까지 도달하는데 예외 없이 40~50년이 걸렸고, 50%에 도달하는 데 100년 이상 걸렸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인류가 경험한 에너지전환 과정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현재 진행 중인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각도 좀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중 5% 경제성장에 우리가 관심 갖는 이유

이슈&인사이트
Issue&Insight

최용

Veracone 투자컨설팅 대표



망가지 오히려 디플레이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까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4분기에 5% 상단의 성장을 이룩하지 못하면 중국 정부가 목숨처럼 여기는 5% 성장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7월 3중전회에서 시진핑이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이 일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자기 고백을 하였고 중국 당국은 부랴부랴 여러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9월 24일 기준을 50bp를 내리자 시장은 반응했고 상해지수와 홍콩恒生지수가 20% 넘게 상승을 하였다. 그 후 저소득층을 위해 현금과 소비쿠폰 지원 및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들의 예기도 나왔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지난 12월 중국발전기금위원회의 발표 때 특별국채 발행의 구체적 규모가 나오지 않아 21일 발표된 중국의 기준금리인 LPR의 25bp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은 후 현재 답보 상태다. 시장은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기다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특별채권 발행과 호주제 폐지 또는 변경안이 있다.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중국 상품에 대해 공공연하게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특별채권 금액을 내놓기는 어려울 거다. 미 대선 이후 특별채권 규모가 발표될 거라 예상된다. 그 규모가 2조 위안을 넘지 않는다면 시장은 실망할 거다. 호주제 변경은 정치적인 문제라 구체적 예기는 시기상조라는데 중론이다. 일단 부양책이 성공하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잠재된 내수를 재정 정책이 마중물이 되어 국내 소비를 살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경제는 어차피 심리의 안정이 최우선이다. 우리의 대중 수출도 울며 살아날 조짐이 보였으나 다시 주춤하고 있다. 미국의 견제로 수출이 막힌 중국은 국내 소비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하고 이게 성공한다면 우리의 화장품과 레거시 반도체인 D램, 낸드플래시를 비롯한 중간재 등의 대중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또한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5%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금처럼 빛이 많은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서로 잡혔기 때문이다. 지난 해 5.2% 성장을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가진 중국은 올해 같은 기조로 경제를 끌고 왔지만 오히려 2.3분기 연속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자 부랴부랴 금융 및 재정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부양책을 써서 침체된 중국 국내 소비가 살아난다면 이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크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 핵심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내수의 회복이다.

중국은 2008년 경기부양을 위해 당시 GDP의 14%에 달하는 4조 위안을 시장에 풀었지만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부채의 사슬에 엮이게 되었다. 2014년 주식시장 부양 정책도 실패하였고 2019년 이후 코로나 봉쇄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과 지방정부 재원의 주된 수익원인 부동산이 오히려 지금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결정적인 사건은 21년과 23년 부동산 개발회사인恒大와 비구위위안이라는 무너지면서 아파트 미분양과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한 부분이다. 중국 지방정부 재정의 거의 전부인 토지 매매가 중단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은 심각한 상태다. 게다가 리오프닝으로 경제와 부동산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마저 무너지면서 소비가 급속히 줄어들었고 부동산 소유자들과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버는 돈을 빚을 갚는데 쓰다 보니 내수가

전기요금, 비싸졌지만 오늘이 가장 저렴할 수도

기자의 눈

나광호 선임부 기자
spero1225@ekn.kr



서도 인버터 등 가전제품이 늘어나는 추세다. 충분한 공급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공급능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등의 이유로 2036년까지 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석탄화력 발전은 올 1~8월 기준 전체 발전량의 28.5%를 차지하는 주요 발전원이다. 국내 발전량의 13%가 넘는 전력이 12년 안에 사라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성 있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따른다. LNG발전 생산단가는 유엔탄·무연탄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LNG값이 급등하고 각국의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도 심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지난달 태양광발전 생산단가는 kWh당 145.8원, 풍력은 136.0원으로 집계됐다. 수치상으로 보면 석탄화력발전보다 낮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 이행비용정산금 등을 합한 수치는 이를 훌쩍 상회한다. 실제로 지난해 한전이 부담한 RPS 관련 비용은 4조원에 달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인 솔루션으로 꼽히는 원자력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지연에 직면한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장소를 찾지 못하면 신규 원전 건설은 꿈도 꿀 수 없다. 원자력업계는 2030년대 중반부터 기존 원전의 가동 중단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결국에는 민생을 이유로 억눌렀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도 이뤄질 수 있다. 국민들도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가운데 쉽게 냉·난방 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음을 모으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1년 만에 또다시 높였다.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일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원가 인상분 반영 등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출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도 서울 집값처럼 '오늘의 가장 싸다'는 말을 들을 공산이 크다. 수요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확대, 전기차 보급 증가, 전기로 건설을 비롯한 요인이 있다. 가정에

▷ 외부필자의 원고는 에너지경제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www.ekn.kr	
우) 04516	서울 중구 새문안로 26	발행인 송용희	시장 임정효	주필 신연수	편집국장 송영택
청양빌딩 5층		· 정치경제부	02-6749-3118	· 기후에너지부	02-6749-3140
대표전화 02-850-0114		· 산업부	02-6749-3114	· 국제뉴스부	02-6749-3173
대표팩스 02-867-0453		· 금융부	02-6749-3172	· 전국부	02-6749-3119
광고문의 02-6749-3124		· 자본시장부	02-6749-3170	· 종합편집부	02-6749-3127
구독문의 02-6749-3125		· 유통중기부	02-6749-3147	· 디지털콘텐츠국	02-6749-3151
MICE 사업문의 02-6749-3149		· 건설부동산부	02-6749-3160		
독자서비스센터 02-714-1212		· 1989년 5월 26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가-50065호	· 구독료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월 20,000원	1부 1,000원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복지미디어 그룹

복지TV

장애인신문

웰페어뉴스
Welfarenews.net

복지 TV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전국 모든 지역에 송출되는 사회복지 전문방송입니다

장애인 소외계층의 참여와 권리행사 보장을 위한 국내 최초 장애계 전문지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며, 심도 있게 전달하는 인터넷 뉴스입니다

skylife 188 KTolleh 219 SKBtv 504 LG 173

웰페어뉴스 Welfarenews.net <http://www.welfarenews.net/>

Q LG의 클린테크에 바라는 게 있나요?

해녀덜 물질하는 바닷가 깨끗해서민 좋으께라

제주도 새내기 해녀 강혜리 님은 바다가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LG는 신재생 에너지 기반 탄소 저감 기술, 폐플라스틱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바이오 소재 플라스틱 등 클린테크로 건강한 바다를 꿈꿉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새내기 해녀 강혜리 님



※LG의 클린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g.co.kr의 2022-2023 ESG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